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평화누리길에서 만난 김포 사람들의 이야기

-

펴낸날 2021년 11월 30일 초판 1쇄
2021년 12월 07일 초판 발행

지은이 김두안 주석희 천선필 최다예 최영찬 이종숙 전현서

펴낸이 (재)김포문화재단 이사장

책임편집 김미정

기획 (재)김포문화재단 평화기획팀

편집 민소영 백연주 박진아

디자인 ODIF STUDIO

Illustration_ Oh!Bom

펴낸곳 도서출판 애기꾼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46 23-11 1층

Office 070.8880.8202 Fax 0505.361.9565

E-mail batistaff@naver.com

등록번호

제 2021-000057호 (2013.10.28)

ISBN 979-11-88487-08-0 03810

떠내는 글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김포는 대한민국 서북부의 접경지로 민족 분단 이래로 늘 경계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오늘에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새로 문을 열고 한강을 둘러싼 철책이 제거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강과 김포아라마리나에는 수많은 자전거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힘껏 달려온

사람들은 김포의 평화누리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립니다. 작은 마을과 마을을 이은 평화누리길 끝에는 평화의 완성을 기다리는 경계선, 철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간절한 염원과 소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조상들의 피땀이 서린 문수산성과 애기봉이 분단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포는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 어느 곳보다 완전하게 간직하며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곳의 이야기를 이 작은 책자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마을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다양하고 또 풍성할까요. 아쉬움을 담아 일차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김포에서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전쟁의 아픈 기억과 가난하고 험했던 고단한 시절, 풍요와 행복이 시작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을 사는 우리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함께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포의 대표적인 접경마을인 용강리, 전류리, 보구곶리의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평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
습니다.

김포가 다시 번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물결이 넘실댈 날
이 분명히 올 것을 믿으며 이야기를 모으고 책을 발간하기 위해 애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재)김포문화재단 이사장

정화영

일러두기

*이 책은 김포문화재단이 김포의 다양한 유무형 평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억을 이 책을 통해 기록하고자 한다.

*인터뷰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책에 실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초상권과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책에 수록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목차_

퍼내는글_ 004

김 두 안 강령포구_ 014 / 구슬프니 이야기_ 018 / 용강리 매화마름_ 024
/ 술 빛는 이야기_ 026 / 용못에서 살아난 아이_ 032 / 할아버
지의 강_ 036 / 수문 이야기_ 042 / 영화감독 정용주 씨 이야기_
047 / 유도의 꿈_ 054

주 석 희 평양 다디미돌_ 060 / 소년의 몸에 핀 꽃_ 063 / 호박풀떼기_
067 / 연애편지_ 071 / 피란일기_ 076 / 무공훈장_ 080 /
정해일 씨의 꿈_ 086 / 제사 이야기_ 092 / 용강리 우편배달부_
097

천 선 필 용강리 검문소_ 106 / 배미골 전투_ 111 / 터키군 이야기_ 117 /
가마니 속 빨간 구두_ 122 / 포탄 불꽃놀이_ 128 / 3점짜리 화투처
럼_ 134 / 호미 이야기_ 138 / 용못의 사랑_ 142 / 한강하구 중
립수역_ 146

최 다 예 한사리 때_ 152 / 그때 그랬어_ 156 / 나의 애창곡 18번_ 160 /
봉성리 토박이_ 164 / 피란민들 사이에서_ 170 / 닭서리_ 176
/ 그 세월을 말하면 뭘 해_ 180 / 전류리 새댁 이야기 1_ 184 /
전류리 새댁 이야기 2_ 190 / 황금들녘_ 195

최 영 찬 전류리 어부의 일상_ 204 / 전류리 The 어부_ 208 / 유빙에서 건
진 송어_ 213 / 전류리 토박이와 이주민_ 217 / 야반도주_ 222 /
한밤중의 총격전_ 228 / 천장에 숨겨둔 돈_ 232 / 전쟁과 평화_
237 / 아버지의 발자국_ 242

이 종 숙 덕포진 지킴이_ 248
보구꽃리 농부의 평화_ 254
철책선 위로 기러기는 돌아오고_ 258

전 현 서 고향이라는 이름의 평화_ 266 / 마지막 집_ 270
아버지의 손가락_ 276
세 번 살아난 목숨_ 281

에필로그_ 288

용강리 마을 이야기 사전_ 292





김두안

첫 번째
작가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했으며 소속은 한국시인협회와 한국작가회의의 회원이며 김포에서 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섬과 사람 사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비행 소년처럼 여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주의 아주 먼 별에 도착한다면
“여기도 너무 시끄럽군!” 소리치고 싶습니다. 갯벌판화 개인전 <제5의계절>을 1차 진행했으며 조만간 동시집 출간 예정입니다.
시집은 <달의 아가미> <물론의 세계>가 있습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강령포구
구슬프니 이야기
용강리 매화마름
술 빛는 이야기
용뭇에서 살아난 아이
할아버지의 강
수문 이야기
영화감독 정용주 씨 이야기
유도의 꿈



강령포구는 이 근처에서 가장 큰 포구였어.
고려시대 때는 이계월이란 유명한 기생이 살았었대.
그 기생 이름 때문에 강령포를 '이기울'이라고 불렀었대.
사람들이 이계월, 이계월 부르다
나중에 이기울이 된 거야.
마을 이름이 바뀐 후에도
용강리는 몰라도 이기울에서 왔다고 하면 금방 알았어.
이계월은 노래도 시도 잘 지어서
먼 지방에서까지 술을 마시려 왔었대.

강령포구 앞 강물 속에는 '노구여'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물이 소용돌이치는 아주 위험한 곳이야.
그 노구바위에 배가 부딪쳐 사람이 많이 죽었대.
그래서 북쪽 해주로 가는 연락선이
강령포구에 정박해 있다가 밀물에 바위가 잠기면 떠나갔지.

나는 어렸을 때 강령포 부두에서 배를 구경하다
낚시를 하며 놀았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았었지.
그런데 6·25전쟁이 일어나 포탄이 마을을 뒤흔들었어.
인천상륙작전에 북한군이 물러나고
미군이 와서 강령포구를 점령했어.
아이들이 미군을 따라다니며 과자를 얻어먹었지.
초콜릿 초콜릿 외치면
자동차 위에서 미군들이 깔깔대며 과자를 던져 주었어.
먹다 버린 커피 봉지를 훔으면
쫄쫄하고 달콤한 맛이 참 이상하게 좋았어.

지금도 저녁노을이 아름답던
옛날 강령포구가 그리워.
북적북적 사람 사는 동네 같았거든.
이젠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해.
내 나이가 벌써 여든한 살인데 그냥 평화가 좋아!
가만히 용강리에서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우일 씨가 어렸을 때 강령포에서 살면서 겪은 이야기



구
슬
프
니 이
야
기

1

용강리에서 보구꽃리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섬 같이 생긴 산이 있어.
그 왼쪽에 완만한 산자락이 구슬프니야.
여기저기 무덤이 많았지.
옛날엔 아이들이 아파 죽으면 모두 구슬프니에 묻어 주었어.
그 구슬프니 고갯길로
성동리도 가고, 강화도에 장을 보러 갔었지.
그때마다 부모들이 구슬프니를
지나가다 울고
지나오다 울었어.
또 들에서 일을 하다 그 아이가 생각나면
구슬프니를 쳐다보며 울었어.

2

고려시대부터 구슬프니에 고려장을 많이 했었대.

땅을 파서 그 안에 돌로 동그랗게

벽을 쌓아 아주 작은 움막을 만든 거야.

평생 쓰던 이불이랑 그릇을 넣어 주고

늙은 부모를 그 움막에서 살게 했던 거지.

먹고살기 위해 일은 해야 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지.

자식들은 매일 한 번씩 작은 구멍 속에

밥을 넣어 주며 부모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했었던 거야.

그러다 부모님이 혼자 돌아가시면

그 자리가 그냥 무덤이 되었던 거지.

효도를 다 하지 못한

자식들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야.

어찌 보면 구슬프니는 용강리

사람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곳이야.

3

조선시대 때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문수산에 높고 긴 성을 돌로 쌓았었다.
나라에 큰 잘못을 한 죄인들을 동원해
성 쌓는 일을 시켰었다.
그 당시 죄인들은 강령포 숙소에서
십 년, 이 십 년씩 먹고 자며 생활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
아주 먼 곳에서 면회를 온 거야.
그런데 자식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다 함께 죽어 버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땅에 묻어주고
그때부터 그곳을 구슬프니라고 불렀었다.

이우일 씨와 마을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구성함.





용강리 매화마름

먼 옛날부터 용강리 마을 논에는
매화마름이 살고 있었대요
5월 봄이면 매화마름꽃이
못물에 별처럼 피어난대요

매화마름꽃은 못물에 피어난
매화꽃 같기도 하고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면
반짝이는 은하수처럼 보인대요

다른 동네 마름은 소뿔처럼 생긴
까만 열매가
땅속에 매달려 있는데
용강리 매화마름은
꽃만 피는 희귀한 종류래요

옛날 농부들은 올망대라고 불렀는데
모내기를 하려면
마름꽃이 너무 많이 피어나
손에 슬리퍼를 끼우고 걷어내야 한대요

매화마름 꽃말이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온 세상에 가뭄이 와도
용강리 매화마름은
마르지 않는 용뿔 때문에
봄마다 꽃을 피우며 살고 있대요

술
빛
는 이
야
기

난 스물네 살에 시집을 와서 술 빛는 법을 배웠어.

벌써 60년이 다 되었어.

농주를 팔아 애들 학교를 보내고

집안 살림에도 도움이 되었지.

계절마다 술 빛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

자박골에서 물동이로 물을 떠 와야지.

산에서 빨감도 해야지.

커다란 항아리와 시루도 닦아 놓아야지 무척 할 일이 많았어.



그리고 술을 만들 때는 날씨가 좋아야 해.
날이 더우면 술이 빨리 익고
날이 추우면 술이 늦게 익거든.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쌀 한 가마니를 잘 씻어 물에 담가야 해.
두세 시간이 지난 후 쌀을 건져내
아궁이에 불을 지펴 술밥을 삶는 거지.
시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 술밥을 꺼내 명석 위에 식히는 거야.
술밥이 꼬들꼬들 마르면
다시 술밥과 술약을 섞어 삶는 거야.
그렇게 두 번 삶은 술밥에 이스트를 섞어
항아리에 정성스럽게 담아 삭히는 거지.
항아리 속에서 술밥이 보글보글할 때 건들면 절대 안 돼.
술밥이 혼자 순해지도록 가만히 놔두어야 하는 거야.
한동안 시간이 다 지나면
노르스름한 술이 말갭게 위에 고이지.
참 이상하게도 손맛 때문인지 술맛이 매번 달라.
좋은 술은 그릇에 부어 따라보면 금방 알아.
술이 미끈거리지 않고 그릇에 쭉쭉 줄이 생기지.

용강리는 물맛이 좋아 술도 맛있어.
6·25전쟁 때도 군인들이 술을 많이 얻어먹었지.
그리고 명절 제사 때 제주로 쓰려고
동네 사람들이 주문을 많이 하는데 항상 부족해.
생각해 보면 술 빚는 일이 전쟁 때보다 힘들었어.
이제 내가 늙고 병들어 술 빚는 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큰아들 부부가 해 본다고 해서
술 빚는 비법을 알려주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빚은 술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인희 씨는 1940년생이며 용강리 용림말에서 전통 농주를 만들며 살고 있다.





용
뭇
에
서
살
아
난
아
이

우리 영미가 세 살 때 죽을 뻔했지.

동네 용뭇에 빠져서 말이야.

그때가 5월 아침이었거든.

나는 마당에서 정신없이 술을 빚고 있었는데

어느새 영미가 친구하고 용뭇에 놀러 갔던 모양이야.

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지.

그런데 용뭇 아래 개울에서 빨래하던 아줌마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 글썄 영미가 물에 둥둥 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가 빨래를 하다 말고
열른 영미를 건져내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대.
사람 살려 달라고
그때 마침 마을 이장이 달려가 인공호흡을 해서
영미를 간신히 살려 놓았어.
사람들이 영미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변해 버렸더라고.
나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
영미를 품에 안으니까
아침에 먹었던 밥을 내 어깨 위에 조금 토하더라고.
그래서 영미를 방에 눕혀 놓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
산에서는 뼈꾸기가 울지.
내가 왜 사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영미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겨우 일어났어.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둘이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어.

그리고 지금 영미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이 되었지.

어려서부터 마음이 착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가끔 영미가 휴가를 오면

용뭇 정자에 앉아 혼자 책을 읽고 있어.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영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지 몰라.

윤순희 씨는 1932년생이며 용강리 용림말에서 전통 농주를 만들며 살고 있다.

별명은 ‘왕언니’이다.



할 아 버 지 의 강

윤순희 할머니는 스물두 살 때 개곡리에서 용강리로 시집을 왔대요.

친척 언니가 신랑을 소개해 줘서 결혼을 했대요.

할머니랑 동갑이고 잘생긴 총각이었대요.

할아버지 고향은 북한 개풍군인데

6·25전쟁 때문에 바지저고리만 입고 피란을 온 사람이었대요.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면 고향에 돌아가려고

용강리 마을 친척 집에 머물러 있었대요.

윤순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살림을 차리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다 조강포구 강변에 철책선이 생겨나서
영영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대요.
용강리 마을에는 농사지를 땅이 없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술을 빚어 이웃 마을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을 낳고 살면서도
할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날씨가 좋은 날엔 용강리에서 북한에 있는 고향 산이 보이는데
술을 드시고 몰래 강가에 다녀오시곤 했대요.
어느 날 방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고향에 있는 가족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정말 많이 우셨대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던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다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잠이 들곤 했대요.
윤순희 할머니는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안쓰러워 힘이 들어도 혼자서 술 빚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7년 전에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장사를 지낸 지 3일이 되던 날 밤
막내딸 영미가 꿈을 꾸었대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강가에 쓸쓸히 앉아 있었대요.
아빠, 여기서 뭐 해? 하고 물어보니까
고향에 가야 하는데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대답했대요.
할머니가 시집온 지 68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
할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대요.
할머니네 집 마당 아궁이에는
술 빛는 솔단지가 걸려 있고
할아버지가 심어 놓은 분홍색 맨드라미꽃들이 피어있어요.
올해 아흔 살이 된 윤순희 할머니는 웃는 듯 우는 듯
골목길 작은 평상에 앉아
푸른 하늘을 보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대요.

윤순희 씨 남편은 용강리 용림말 민규식 씨다.

수문 이야기

용강리는 강가에 수문이 여섯 개가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면 문수산 골짜기에서
빗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요. 만일 수문이 닫혀 있다면
마을 논들이 물바다가 되어 버려요.
몇 년 전에는 바닷물이 갯골을 타고 올라와
마을 용뚝이 잠길 뻔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워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경영인이 되었죠.





지금 용강리 논농사를 제가 50% 정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십 년 동안 수문을 관리하고 있죠.
마을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
누군가는 매일같이 수문을 돌봐야 해요.
천등 번개가 칠 때면 정말 무섭죠.
쇠로 된 수문을 만지다 벼락을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빗물이 하천에 가득 고일 때 수문을 열면
수문 전체가 덜컥거리며 부들부들 떨어요.
군인들은 간첩이 넘어온다고
맨날 수문을 닫아버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닷물과 빗물을 관리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항상 점검을 해야 해요.
새벽에 수문을 돌보는 시간이면 아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수문을 보러 가다 보면
가끔 붉은 수수밭으로 해가 질 때가 있어요.
그 노을빛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내 마음이 다 숙연해져요.
마치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렸을 때 들녘에서
백 리나 떨어진 개성의 기차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또 해주 쪽 먼바다에서 뱃사공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제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용강리에는 아버지의 추억과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수문을 돌보는 일이 힘들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영범 씨는 1962년생이며 용강리 먼지락에 살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인이다.

영
화
감독
정
용
주
씨
이
야
기

저는 김포 용강리에서 태어나 문수초등학교와 통진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대학을 가기 위해 이왕이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자고 했어요. 시골에서 자란 제 정서가 영화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딱히 없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는 하겠죠.



어렸을 때 미꾸라지를 잡아 동네 형들하고 추어탕을 끓여 먹었어요. 여름이면 하루에 몇 번씩 용못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어요. 깊지도 위험하지도 않아 천연 수영장이라고 보면 돼요. 가끔 뒷산에도 갔었는데 송로버섯, 피꼬리버섯, 싸리버섯이 있었어요. 비가 오고 하루 정도 지나면 버섯이 올라오거든요. 산속 젖은 바닥에서 습기가 안개처럼 피어나면 그 신비한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밤에도 낮에도 대남방송을 들으며 보구꽃리까지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겨울엔 무척 추웠어요. 강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산 밑에 방공호 같은 것이 있는데 군인들이 파 놓은 통로로 걸어 다녔어요. 북한 방송이 안 들리게끔 우리 쪽에서 남쪽으로 거꾸로 스피커를 쏘면 엄청 와글와글 했죠. 밖에서 볼 때는 바로 북한이야. 외국인들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분단국가야,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야, 모두 그러는데 살던 사람들이야 그런가 보다 해요. 휴전선 하면 파주나 철원 쪽을 생각하는데 사실 김포에서 북한이 더 가깝잖아요. 제 고향이 김포 시골 민통선 마을이라고 하면 서울 직장 동료들은 거기에 무슨 민통선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저희 아버지는 삼십 년 전에 마을 이장이셨고 지금 다시 이장직을 맡고 계세요. 점점 어르신들이 연로해지니까 마을의 문화를 보존하거나 계승한다는 게 걱정되신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산에도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젊은 저로선 고향이 훼손되는 것이 싫어요. 하지만 개발 업자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마을의 주거 환경과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고민하고 계세요. 김포에서 유일하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용강리도 언젠가 변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을을 왕래하는 도시인이 쉬어 갈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공연도 보고 영화도 앉아서 보는 소규모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을의 변화는 누구를 위한 변화일까?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센터를 만든다면 어떤 콘텐츠를 미리 정해놓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회의를 해야 해요. 단지 어느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고요. 용강리 주민이 마을 문화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밖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합니다. 난개발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민통선에 살면서 철책선을 한 5미터 정도까지밖에 접근해 보지 못했어요. 강가에 나가 흐르는 강물도 만져 보고, 백로가 내려앉으면 섬이 하얗게 보이는 백로 섬(유도)도 한번 가 보고 싶어요. 가끔 마을 앞에 뜬 쌍무지개도 보고 싶고요. 제게 고향은 옛날 그대로의 편안함이거든요. 검문소를 통과해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자동차가 혼자 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다시, 봄’이란 영화에서처럼….

정용주 씨는 용강리 출신 영화감독이다.
‘다시, 봄’, ‘네버엔딩 스토리’ 등 영화를 만들었다.



유
도
의
꿈

*이 시는 가수 안계섭 씨가 곡을 붙여 평화의 노래로 만들었다.

* 시- 김두안 시인

오랫동안 기다림에 지쳐버렸어
난 어디론가 떠날 수도 없어
침묵이 흐르는 강물 속에
슬픈 꿈을 꾸는 섬이 되어버렸어

어제는 쓸쓸히 바람이 불고
강가에는 노을이 들었어
밤에는 수많은 푸른 별빛
내 슬픈 현실을 비춰주었어

사람들은 나를 전쟁과 평화 사이
감혀버린 불행한 섬이라지만
난 꿈을 꾸며 꿈을 생각해
언젠가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을

난 꿈을 꾸며 말을 해야 해
언젠가 우리 앞에
평화는 현실이 될 테니까





꽃이 많이 피는 섬진강 변, 화개(花開)에서 태어났다.
어린 날에는 책을 읽는 날보다
흰 나비와 물잡자리를 쫓아다닌 날이 더 많았다.
호기심 가득한 그 날들이 관찰력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환갑 전에 생의 마침표를 찍은 어머니는
강물 위 부표 같던 나를 시인의 길로 이끌었다.
끝없이 내면을 응시해야 하는 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시인으로 등단하면서 왼쪽 어깨에 날개 하나가 돌아났다면,
큰 수술을 받고 오른쪽 어깨에 날개 하나가 마저 돌아왔다.
비로소 돈 버는 일에서 벗어나,
시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
행운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고는 했다.
2013년 포엠포엠 등단이 그렇고, 2014년 젊은 시인 선정이 그렇고,
2015년 중봉 문학상 우수상과 2020년 포엠포엠 작품상이 그랬다.
2019년 문예 진흥기금 수혜로 시집 '이타적 언어'를 출간하게 되었다.
지나간 계절,
풀벌레 소리를 받아 적는 일이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평양 다디미돌
소년의 몸에 핀 꽃
호박풀떼기
연애편지
피란일기
무공훈장
정해일 씨의 꿈
제사 이야기
용강리 우편배달부



평양
다디미돌



용강리 이장 정해곤 씨 집에는 평양에서 가져온

다디미돌이 있습니다.

단아한 2층집 현관 앞에 남한 다디미돌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6·25전쟁 때 우리 국군이 후퇴하면서 선물로 주고 간 것입니다.

그때는 북한군도 남한군도 마당이 넓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갔

는데, 어느 소령이 허기를 달래서 너무 고맙다고 밥값으로

주고 간 다디미돌입니다.

평양 어느 부잣집에서 가져온 다디미돌을 어머니께서 많이 아끼며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밤새 그 다디미돌을 두드리며 어린 우리들의 옷을 손

질했고, 그 다디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해곤 씨는 몰로 다디미돌을 닦으며 6·25전쟁 때 사연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다디미돌은 단단한 썩색이며 모통이가 살짝 깨져 있고,

인동초와 석류문양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해곤 씨는 가끔 그 다디미돌을 보며 평양 누 집 다디미돌일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고 돌아가신 평양의 다디미돌을 두드려보며,
1948년생인 정해곤 씨는 머지않아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
합니다.

물기가 말라가는 평양 다디미돌과 남한 다디미돌이 서로 나란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정해곤 씨_1990~1993년 용강리 이장 역임, 2020년~현재 용강리 이장

1952년 여름, 용강리 마을은 치열한 전쟁터였고,
 정해균 씨는 그때 겨우 열다섯 살 소년이었습니다.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소년은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친구들과 논에 물을 보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아 강 너머 마을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논은 용못에서 서쪽으로 이백 미터쯤 떨어져 있었는데,
 소년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논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몸이 공중으로 뿔 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니다.
 용강리에 주둔한 미군을 잡겠다고,
 강 건너 개풍군에서 중공군이 쏜 대포가 들판과 마을을 덮친 겁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이 뛰어와 아버지에게 소년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소년을 가마니에 말아 지계에 지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꼭 살려달라고 미군부대에 맡겼던 겁니다.
 소년이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통진 미군부대 의무병원이었습니다.
 몇 달간 몸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전쟁 속에서 열 식구 먹고살기에 급급한 가족들은 면회조차 올 수
 없는 무심하고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미군의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소년은 통증이 가시지 않은 몸으로
 삼십 리 길을 걸어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해균 씨의 등에는 파편 자국과 미처 제거하지 못한 파편이
 엑스레이 사진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70년이 흘러 이제는 한 몸이 되어버린 그 여름날의 파편,

평화롭게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꺼내 보이는 정해균 씨!
그때는 모두 그렇게 살았다고,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또한 꽃이라면, 정해균 씨의 온몸은 찬란한 꽃밭입니다.
양말을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1938년생 정해균 씨,
오른쪽 발목에 두 개의 흉터가 국화꽃처럼 피어있습니다.

여든두 살이 된 이인희 씨는 5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어려워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안일을 돕다
 스물네 살에 용강리로 시집을 왔는데요,
 남편은 환갑이 되기 전에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6·25전쟁을 열 살 때 대곶면 쇠암리 친정집에서 겪었는데,
 전쟁 중에 군인들이 쌀이나 나무를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했어요.
 달라는 걸 순순히 내주면 다행히 마을 사람을 해치지 않는지요.

그때는 보리도 귀해서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맷돌에 밀을 갈고 콩 한 줌 넣어 호박을 잔뜩 썰어 넣은 호박풀떼기
죽을 많이 먹었어요.

그나마도 여자들은 방에도 못 들어가고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박 바가지에 호박풀떼기 죽을 담아 먹었어요.

호박풀떼기 죽으로도 배가 안 차면
산에서 나물을 뜯어다가 귀한 참기름은 못 넣고
들기름에 간장 넣고 무쳐 주린 배를 채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요.

호박풀떼기 죽이라든 실컷 먹는 날에는 저녁에 잠도 잘 왔어요.

제대로 못 먹고 공부에 한이 맺힌 이인희 씨는
자식들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싶어서 산아제한을 했어요.

위로 딸 하나와 아래로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낮에는 삼포에 나가 허리가 휘도록 품을 팔고
집안일은 밤중까지 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굶은일도 가리지 않고 낱품을 팔고 악착같이 자식들을 가르친 덕분에
큰아들은 공학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파란지붕 작은 집에 혼자 사는 이인희 씨는
지금도 산 아래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3남매에게 참기름 들기름 된장 고추장
손수 만들어 주고 싶어서 여전히 맡일을 해요.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났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던 이 집이 한없이 정겹고 편안해요.
가을철 늙은 호박이 집안 가득 쌓일 때면
살기 위해 먹어야 했던 호박풀떼기 죽이 생각난다고 해요.
두 살 많은 언니 이선희 씨는 용강리 먼지락으로 시집을 먼저 왔고
이인희 씨는 용강리 용연마을로 나중에 시집을 왔는데,
자매는 어렸을 때 먹던 죽이 지겨워 지금도 죽을 안 좋아해요.

나는 저기 강령포구가 있는 궁곶에서 태어났어.

1941년생 이우일 씨가 짧은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전쟁이 끝나고 내가 열아홉 살이던 1960년대는 펜팔이 엄청 유행했어.

내가 펜팔을 많이 해서 문장력이 아주 좋았다고.

한번 편지를 쓰면 호롱불 밑에서도 대여섯 장씩 쓰는 바람에 편지 봉투가 늘 빵빵했지.

한참 펜팔에 미쳐 있을 때는 마을 입구에서 우체부 아저씨만 기다렸어.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야. 몇 날 며칠 편지 기다리는 그 기분.
그때 아주 재미있었어. 그런데 펜팔 친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펜팔 친구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편지
로 만나고 편지로 끝냈어.
그 후로 내가 스물두 살 때쯤 첫사랑을 만났어.
우리 동네 처녀였는데 나보다 세 살 아래였고
양 갈래로 땀은 머리가 아주 예뻐서.
첫사랑하고 만날 때도 연애편지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어려서부터 일기를 계속 쓰고 펜팔을 자주 해서 연애편지를 잘 썼어.
저 뒤 문수산 보이지. 저기에서 자주 만났는데,
배미골로 올라가면 오리나무 군락지가 나와.
거기서 한참 앉았다 오고 그랬어.
같이 걸으면서 길가의 망초꽃을 꺾어 꽃반지도 만들어 주고,
운 좋게 덩불에서 산딸기를 만나면 치맛자락에 모아 둘이서 실컷
먹고 그랬어.
결국 집안 반대로 첫사랑하고 결혼은 못 하고 첫사랑은 서울로 시
집을 가 버렸는데,
그때 상심하고는 스물아홉에야 중매로 개곡리에 사는 처녀와 결혼을
했지 뭐야.



그런데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일기장하고 연애편지 상자를 마누라에게 들켜버린 거야.

편지를 읽어본 마누라가 모두 태워버리라는 거야.

아들 둘 낳고 살 때니 태워야지 어쩔 수 없잖아?

일기장하고 연애편지 한 박스를 내 손으로 아궁이에 모두 태웠어.

아깝지는 않아. 후회도 없고.

팬팔도 하고 연애도 해 보고 해 볼 거 다 해 봤잖아?

마누라는 십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첫사랑은 서울에서 잘 살고 있대.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됐지 뭐.

지금이라도 동네친구에게 전화번호를 물으면 알겠지만 안 물어봐.

팔순을 넘긴 이우일 씨 눈빛은 그래도 첫사랑의 모습이 어찌 변했을까 몹시 궁금한 눈치입니다.

배미골로 가는 저 길가에는 꽃반지를 만들어 끼워주던 망초꽃이 여름마다 싸락눈처럼 분주히 흔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용강리 주민 1939년생 조옥현 씨는 친정집 고정리에서 열두 살에 피란을 가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이 나고 그해 여름에는 김포 응주물(감정동)로 잠시 피란을 다녀왔고 겨울 동짓달에는 인민군이 밀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나까지 네 식구가 조씨 일가가 살고 있는 계룡산 아랫마을로 피란을 가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해수병을 앓던 어머니는 임신 중이었는데 연신 기침을

하면서 며칠간 신작로를 걸었습니다. 피란처 계룡산 아랫마을에 사는 조씨 일가에서 방 한 칸을 얻어

피란살이를 하던 중에 둘째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몸이 약한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하고 밥 짓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둘째 동생이 태어난 지 백일이 가까워지고 집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점점 떨어지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솜이불에 아기를 맡아 세간살이 위에 올리고 지계를 지켰고

나와 남동생은 어머니 손을 잡고 밤낮없이 걸었습니다.

평택쯤 올라왔을 때 일입니다.

군인들이 큰길에 막고 피란민들을 못 지나가게 막았습니다.

피란민들은 가지고 있던 가재도와 짐보따리를 길가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먼저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간청에 따라

아버지는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솜바지를 벗어 어머니께 맡기고 고쟁이바람으로 맨 먼저 나를 안고 빨밭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번 빨밭을 건너 식구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그날 뽕구덩이 한가운데에 젊은 여자 하나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꺼내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피란민들은 자기 가족 외에는 주변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열흘을 넘게 걸어 지친 몸으로 고정리 집에 도착해 보니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김장을 해 놓고 간 김치독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개풍군에 살고 있던 먼 친척 조씨 일가가 우리집으로 피란을 내려와 겨울 내내 살다 간 것입니다.

그로부터 십 년 세월이 지나고 전답이 있는 세 살 위 남편을 만나 용강리로 시집온 나는 결혼하고도 친정집을 돌보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결국 해수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남동생 셋에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사촌동생에 아버지까지

남자만 다섯이 사는 친정 나들이를 할 때면

여자가 없는 부엌살림에 바지저고리 빨래에 종일 일만 하다 오는 했습니다.

남동생들은 인천에도 살고 공항동에도 사는데 만나면 피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조옥현 씨는 배불리 먹고 어디로 피란 안 가니 지금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마송에 사는 아들내외가 농사일을 도와주고 가는데
올 때마다 필요한 장도 다 봐다 주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정유현 씨 집에는 무공훈장 두 개가 나란히 걸려있어요.
원주 제1하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24년 간 군인으로 근무했어.
나는 그때 나이가 스물세 살이었는데 월남전 파병을 가게 되었어.
2년 간 베트남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된 거지.
전쟁 중에는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어.
하루는 숲을 수색하던 중에 수십 발의 총알이 날아들었어.
다행히 군복 상의 주머니에 병영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지.



파편이 심장을 비껴 박히는 바람에 목숨을 지켰지 뭐야.
생각해 보면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그날도 동료 몇 명이 죽었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심장 위쪽에 아직도 파편이 박혀 있다니까.
월남전에서 전투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거지.

1967년 10월에 입국할 때는 내가 스물다섯 살이었는데 무공훈장을 받고 특진을 해서 직업군인 상사로 귀국하게 되었지. 월남에서 돌아온 후, 군부대에서는 주로 군수품 관리업무를 맡아 했는데 부하에게 맡기지 않고 사무실 상황판과 장부를 직접 대조해 가며 일일이 체크하고, 남은 군수품을 상부 부대에 반납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아직까지 남은 군수품을 반납한 사례가 없었다는 거야. 그 일로 인해서 주변 부대와 동료들에게 미움을 얼마나 샀는지 몰라.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되었다니까. 그런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위에까지 소문이 났던지 나중에는 남은 군수품을 반납해도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지 뭐야. 1991년 고촌 천등고개에 있는 부대에서 마흔여섯에 전역을 하고 고향마을 용강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 군인연금은 생활비로 쓰고 훈장연금은



매달 따로 적금을 부었지. 그리고 가족회의에서 손주들에게 공표를 했어.

“이 통장에 모아 둔 적금은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받은 훈장 수당이니 너희들 교육비로 쓸 거야.”

초등학생이 시험 결과가 90점 이상이면 과목당 천 원,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만 원. 그리고 손주 여섯의 대학등록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한 거지.

지금도 손주들이 핸드폰으로 성적표를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보내오고 주말이면 손주들에게 정확하게 상금을 지급하며 약속을 지키고 있어.

나는 고향마을 용강리를 청정마을로 보존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어. 그린벨트 지역인 문수산 자락이 축사와 공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걸 알고

시청과 군부대를 수 차례 오가며 간곡하게 설득한 덕분에 모두 취소되기도 했지.

올해 일흔아홉이 된 정유현 씨 집 지하에는 방공호가 있고 현관문에는 ‘국가유공자의 집’ 팻말이 걸려있고 마당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용강리로 이사 오면서 제일 먼저 마당에 심은 나무라고 해요.
곧고 우직하고 넉넉한 느티나무 그늘이 어쩐지 정유현 씨를 닮았
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유현 씨_하루에도 몇 번씩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용강리 환경지킴이
로 활동 중.

정
해
일
씨
의
꿈

나는 젊어서부터 여행을 실컷 해 보는 것이 꿈이었어.

장가갈 때 논 닷 마지기 천 평을 가지고 장가를 갔지 뭐야.

논농사 밭농사 어깨가 빠지도록 농사를 짓고 남의 집 품도 팔고
해서

한참 일할 때는 전답을 5천 평까지 늘렸지.

3남매 낳아 먹이고 가르치고 남에게 빚 안 얻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니까 이만하면 나도 먹고살 만하다 싶더라고.
 젊어서부터 여행을 좋아했으니까 동네에서 봄, 가을 단체로 가는
 관광은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어. 버스 창문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
 을이나 들판 산봉우리, 봄에 피는 꽃도 좋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더라고.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평생 살았으니 어떤 때는 갑갑한 생각이 들어. 6·25전쟁 나고 여
 태도 철조망이 저 강을 막고 있으니 말이어.
 그래서 동네에서 가는 단체 관광을 빼놓지 않고 다녔어.
 강원도 설악산, 경주 불국사, 포항 호미곶, 춘천 소양강 댐, 부산 해
 운대로 태종대로 용두산 공원으로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부곡온천
 말이어.
 제주도도 서너 번 다녀왔으니 제법 다닌 셈이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간 꼼짝을 못하니 죽을 지경이야.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리고 싶구먼.
 다리에 힘이 좀 남았을 때 다녀야 할 거 아녀.
 재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난생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나.
 안사람은 멀미를 해서 못 나서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못 가고



딸 사위 며느리 가족 아홉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거여.

베트남전쟁 난 데 말이여. 웬 오토바이가 그리 많아? 길에 차는 잘 안 보이고 오토바이 천지여.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안 부닥치고 잘도 땡겨 참 신기해.

냄새 많이 나는 과일 돌인가 뭔가 하는 그것도 먹어봤지.

입에 들어가니 냄새가 덜 나.

사람들도 순해 보이고, 우리네보다는 한참 못살지만 경치가 참 좋더라고.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지만 가족들이 데리고 다니니까 불편한 건 없었어.

제주도 갈 때 배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 봤지만

베트남은 몇 시간 걸리니까 화장실 가는 거랑 염려는 되더라구.

거기 잘 갔다 오고는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여.

영영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갈 뻔했지 뭐여.

다시 태어나면 여행이나 원 없이 해 보고 싶어.

6·25전쟁 전처럼 강령포, 조강포에 다시 배가 뜨면

그 배를 타고 아버지 따라 몇 번 갔던 인천도 가보고

개풍을 거쳐 금강산 백두산까지 가보고 싶지. 우리나라 땅이니까

어찌 생겼나 무척 궁금해.

60년 간 해로운 아내와 아픈 데 없이 살다 가고 싶다는 용강리 먼
지락마을 1936년생 정해일 씨는 세상 끝까지 가보고 싶은 꿈을 소
년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사 이 야 기

1940년생 최미자 씨는 스물네 살에 충청도에서 트럭에 싣혀살림
을 싣고 용강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열 식구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만며느리인데도 큰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시누 다섯이 부지런히 들일을 도왔고

최미자 씨는 주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삼시 세끼 열 식구 밥을 해내는 일도 날마다 바빴지만

가장 큰 일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설, 추석, 제사까지 합하면 일 년에 여섯 번 제사를
지내야 했으니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장 힘든 일이 자박골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
이었습니다.

제삿날 이틀 전부터 부지런히 물을 길어 와야 제대로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리에 짚으로 만든 파리를 올리고 양은 물동이로 물을 이고 오
다 보면

어느 날은 돌부리에 걸려 고무신이 벗겨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물동이에서 물이 넘쳐 등이 축축하게 젖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에 쓰는 술을 집에서 만들어 제사상에 올릴 때라
시부모님께서 직접 제주를 담그셨지요.

그 후로 술 빚는 과정을 모두 배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주를 만
들어 먹고는 했습니다.

보름이 걸려야 술맛을 볼 수 있으니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기운 없어서 못 한다고 최미자 씨가 손사래를 칩니다.

용강리에서는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는데

여자들이 손에 소금물을 묻혀서 절구통 속 찰밥을 뒤집어 주고



남자들은 그사이 떡메를 내려치고
 서로 박자를 잘 맞추어야 인절미가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정씨 집성촌인 용강리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이면
 일가친척과 이웃분들을 불러 제사음식과 농주를 나눠 먹고는 했습
 니다.
 그래서 제사음식은 늘 넉넉히 준비를 해야 했고
 동네 어느 집 제사가 언제인지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제사음식을 나눠 먹던
 그때가 인심 넉넉한 시절이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마당 수도꼭지를 가리키며 저 물이 자박골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라고
 용연동 네 집은 여태도 그 물을 먹고 산다고 다시 알려줍니다.
 마루에 호랑이 콩 한 소쿠리를 얹어놓고 도란도란 콩을 까고 있는
 최미자 씨 부부.
 한 콩깍지 속에서 알록달록 잘 익은 호랑이 콩처럼 마주 앉아 다정
 합니다.



제가 용강리 우편배달 일을 한 지는 올해로 5년 됐어요.

검문소를 지나면 시간이 정지된 마을같이 느껴져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이 있어요. 명절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아들이 올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아들이 없거든요.

일 년에 두 번 연기가 나요. 명절이 오면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용강리는 오래 산 집이 있고 이사 들어온 집이 있는데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잘 안 섞이는 것 같아요.

용강리는 겨울이 가장 아름다워요. 눈이 오면 오토바이 사고가 날
까 봐 우편배달을 못 할 때도 있는데, 용강리에 눈이 오면 며칠이
지나도 눈이 정말 깨끗해요.

아! 예쁘다 하고 마을회관쯤 들어가면 찬바람이 뽀뽀 부는데도 마
음이 따뜻해요.

몸이 편안해지면서 여기서 며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용강리에서 보구곶리 쪽으로 넘어가다 오토바이를 농로
에 세워두고 살금살금 오리걸음으로 가다가 와 소리를 내 지르며
철새가 쉬고 있는 논바닥으로 전력질주해요. 새들이 놀라 막 날아
오르면 그거 진짜 재미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철조망 너머 한강 위로 철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 철조망의 위력을
새삼 느껴요.

새들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사람들은 꼼짝없이 철조망에 갇혀 있으
니까요.

제가 우편배달을 하는 지역은 월곶면인데 포내리, 고막리, 조강리,
용강리, 보구곶리, 성동리까지 쪽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편배달을 하고 토요일은 택배 배달을
하는데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져요.

용강리 어르신들은 봄이면 몸을 움직이고 활기차 보여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밭에서 일하느라 쓰러질까 봐 걱정돼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온다는 전화를 받으면 몸을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기다려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얼굴에 살이 좀 켜요. 추수를 모두 끝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신가 봐요. 겨울에는 하도 우편물을 안 가져가 걱정이 돼 문을 두드리면 추워서 꼼짝 안 했다고 해요. 주말에 자식들이 들어오면 용강리는 엄청 바빠요. 농사일 도와야지요, 지붕도 고쳐야죠, 땀감 나무도 해야지요. 용강리 주민들은 청룡회관으로 가끔 단체로 목욕도 다니고 그래요.

어르신들께서 아프지 말고 내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용강리에는 나만의 쉼터가 있어요. 이장님집 앞 배밭 위로 걸어 올라가면 길은 없는데 그늘지고 바위도 있고 시원하고 아늑한 느낌이 나는 곳이 있어요.

용강리 들어오기 전까지가 우편배달이 많이 바쁘거든요. 그 쉼터에서 한숨 돌리며 조금 쉴 때가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이라도 차가 있고 용강리에 땅이 좀 있으면 용강리에 집 짓고 출퇴근하고 싶어요.

어르신들께서 여름에 덥다고 찬물도 내주시고, 이제 정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같거든요.

이번 겨울에 눈 오면 용강리 한번 꼭 다시 가보세요. 평화로운 풍경
에 반하실 거예요.

서른여섯, 예의바르고 씩씩한 이지성 씨가 고향마을을 자랑하듯 신
신당부합니다.







천 선필

세 번째
작가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시를 쓰고, 목판 작업도 합니다.
자기완성의 길을 찾기 위해
자주 전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시간의 이미지 속에서
나를 대면하는 일은 힘들지만,
때론 즐겁습니다.
여러 차례 전통 각자 개인전도 하였고,
중봉 조헌 문학상 대상, 한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용강리 검문소
배미골 전투
터키군 이야기
가마니 속 빨간 구두
포탄 불꽃놀이
3점짜리 화투처럼
호미 이야기
용뭇의 사랑
한강하구 중립수역



용강리
검문소

용강리 검문소 앞 ‘민간인 출입 금지’ 붉은 팻말이 보였다.

“어디 가십니까?” “이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정도요.” 총을 멘 군인이 묻는 말에 답하고서야 검문소 차단기가 열렸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하자 좁고 포장어질된 외길이 보였다.

푸른 하늘과 적막함이 진공상태로 포장된 마을 같았다.

논은 아직 무논이었다.



마을 정류장을 지나 배꽃이 날리는 밭에서 이장님을 만났다.
배꽃을 숨아주느라 얼굴이 붉었다.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검문소를 통과하느라 긴장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낯선 경험을 하셔서 그랬나 보네요. 여기 주민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나는 오히려 아파트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려워요. 도시의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려면 경비원에게 말해야 하고 어찌나 개인정보라고 복잡하던지 배 배달도 몇 개 못하고 한나절이 걸려요.” 이장님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검문소 쪽을 바라보았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려우리라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었네요.”

첫 경험에서 오는 생소함이 편견을 심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멋쩍었다.

“어떤 사람이 용강리 검문소를 옮기자고 말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검문소가 있어서 마을이 안전해서 좋다고 없애지 말라 하더라고요. 용강리에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둑맞는 일이 없었거든요. 검문소 군인들이 마을을 지켜 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용강리로 이사를 온 주민들도 더러 계세요.”

“요새 다른 민통선 지역에서 검문소를 없애자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만큼은 검문소를 없앨 수 없대요. 워낙 최전방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검문소가 없어지면 용강리 검문소는 김포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만 된다면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용강리는 사람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날 거라고 믿어요.”

1949년생 정해곤 씨는 1969년 김포군 4H 연합회장으로 용강리 마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내 얼굴이 검다고 깔보지 마라 /이래 빼도 농촌에서는 멋진 사나이/ 지게 지고 팽이 들고 1년 열두 달/ 소박한 농촌에다 청춘을 바쳤다 /야야야 야야야/ 송아지가 자란다. 살찌우는 농촌/ 네 앞 클로버 한때 뭉쳤다” 청년일 때의 자기 모습을 소환하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개사한 흙의 노래를 우렁차게 불러 주셨습니다.

전쟁 당시 두 살인데 어렵פות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고개를 뺨뚫히 내밀고 바라보았던 총부리의 구명, 안방에 사람들을 쭉 세워 놓고 총부리를 겨누던 군인들의 눈빛, 피란 갔던 동굴 속 습한 냄새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까요.

평화란 나 자신이 평화로우면 된다는 낮은 목소리가 가슴에 돌맹이처럼 가라앉습니다.



1950년 6·25전쟁이 터졌지. 강 건너 멀리서 포성이 들렸어.

그때 나는 나이가 열세 살이었어. 6·25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 날, 인민군들이 검은 보트를 타고 조강을 넘어 강령포에 들어왔어. 강 건너 개풍군에서 온 거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도망가자고 말했어. 산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 밥을 해 먹고 아침 10시경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 거기가 배미골 이야. 멀리서도 인민군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 강 독길을 따라 한 50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



빨간 별이 그려진 모자와 완장을 찬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마을로 진입하는데, 산에 숨어 있던 우리는 정말 무서웠지. 마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개들이 짖고 난리였어.

동굴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어. 차라리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부르며 마을로 내려가자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인민군들이 산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가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마을 어른들 몇몇이 회의를 했지. 우리는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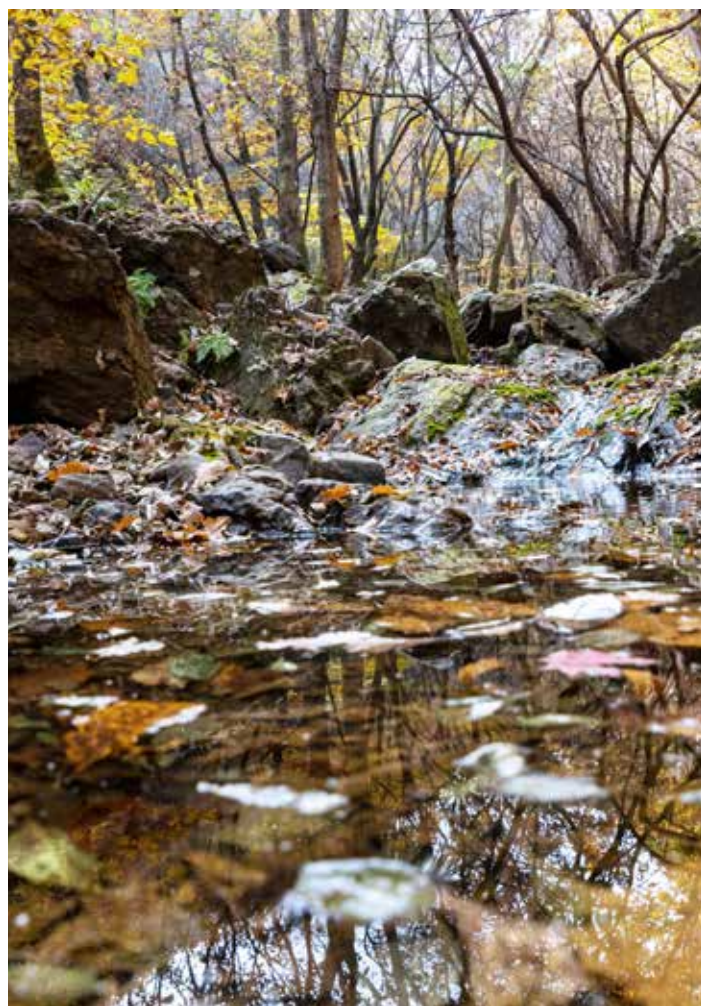
그렇게 마을에 내려왔는데 인민군들이 보이더군. 산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인민군 만세, 인민군 만세”를 외쳤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념이고 뭐고 몰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지.

인민군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해 온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농사를 짓고 하던 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리둥절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

문수산 꼭대기에서 인민군과 국군들이 싸우기 시작했어. 총소리가 참 요란했지. ‘딱 쿵, 딱 쿵, 퓨 웅, 퓨 웅’ 소리에 새들이 일제히 퍼드덕 날아올랐어.



산에서 온종일 총소리가 들렸지.
가끔 배미골 계곡에 핏물이 흘러내렸어.
총소리가 멈추고 인민군들이 들것에 실려 내려왔어.
모두 피로 물든 하얀 천에 덮여 있었지.
핏방울이 노란 애기똥풀꽃 위로 떨어졌어.
다친 병사들은 발을 절름거리고 어깨동무를 하며
산길을 내려오더라고.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숨어 버렸어.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지, 왜 전쟁해야 하는지
그런 의구심마저 들었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만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
어느 저녁에 화장실을 가는데 어둠 속에서 산바람을 타고
화약 냄새가 났어.
하늘을 올려다봤어. 환한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지.
하늘이 푸른 멍이 든 것처럼 퍼랬어.
어린 마음에 참 무서웠어.

용강리에서 태어난 1938년생 정해균 씨는 1950년 6·25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용강리 마을에서 전쟁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왔습니다. 몸에 박혀있는 파편 자국과 함께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전쟁은 참 비참한 거야.”라고 하면서도 가끔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용강리는 서울 서북 관문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지.

6월 25일 일요일, 전쟁이 시작되는 날부터 국군과 인민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야.

처음엔 인민군이 쳐들어왔지. 쌀을 보자기에 순대처럼 말아서 몸에 감고 다녔어.

쌀에서 묵은 냄새가 지독했지. 그걸로 밥을 해 달라는 거야.

총을 대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었지.

두려움에 떨며 집마다 밥을 안 한 사람들이 없었어.
인민군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괜찮았기는 했지만 말이야.
반항만 안 하면 견딜 만은 했어.
군인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중에는 불쌍하더라고.
짬지 같은 반찬도 해 주고 서로 나눠 먹었어.
어쨌든 그 사람들도 고생하는 거잖아.
우리는 어디가 옳고 그런 것은 몰라.
1950년 10월쯤 유엔군이 군하리 오거리에 들어왔고 터키군도 주
둔했지.
터키군은 푸른 눈을 가졌는데 말은 안 통하지, 얼굴은 다 똑같이 생
긴 것 같고, 우리랑 다른 모습이 참 신기하기는 했어.
그런데 말이야. 터키군은 마을 사람들을 너무 업신여겼어.
그때만 해도 우리가 바지저고리를 입고 께죄죄해서 그들이 볼 때
우습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터키군이 있는 곳에는 화장실
도 따로 없었어.
남이 보든 말든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더라고.
터키군이 하도 별나서 우리는 토이기라고 불렀어.
터키군은 마을 여자들을 보는 대로 잡아가 희롱을 했어.
총부리를 들이대고 말이야.



그래서 마을 여자들은 얼굴에 까맣게 숯검정 칠을 하고 여자가 아닌 척하고 숨어다녔어.

아버지나 오빠들의 옷을 입고 말이야. 그 와중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덕 웃더라고.

그 모습이 어찌나 슬프고 마음 아프던지. 지금도 누이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

여자들은 뱃단 뒤에 숨고, 쌀 뒤횥 속에 숨고, 낮에도 밤에도 터키군을 피해 숨죽이며 다녔어.

터키군은 시도 때도 없이 민가를 찾아와서 해코지도 많이 했어.

방공호에다 닭을 키웠는데 거기다 총을 쏘는 거야.

닭들이 도망가더라고. 아마 잡아먹었을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 마을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었는지 몰라.

그렇게 숨어지내면서 전쟁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어.

김주는 씨는 1942년 월곶면 갈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항공대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스물여섯 살까지 살았고 그 안에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6·25전쟁 때 아홉 살이었는데 아침밥을 먹고 부모님과 논에서 말뚝모를 심다가 전쟁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곶 약산까지 피란을 갔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밥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심한 가뭄이어서 물이 없어 바닷물로 밥을 해 먹었는데 너무 짜서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파 놓은 방공호에 버려진 빈 우유 통을 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유 맛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김주는 씨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살고 싶다면 용강리 마을 주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
마
니 빨
속 간
구
두

그때 1·4후퇴를 했잖아요.

우리는 인천 소래포구까지 갔는데 피란민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 당시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은 달구지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달구지도 없어서 등에 짐을 지고 피란길을 떠났어요.

방들을 못 얻으니까 수수깡으로 울타리를 둘러치고 길거리에서 잤어요.

어느 날인가 일어나니 눈이 하얗게 왔어요. 몹시 추웠죠.

중공군하고 인민군들이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데 다들 등 뒤에 하얀 행주치마 같은 것을 모가지까지 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눈 위에서 위장하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미군 비행기가 웅하고 낮게 떠서 날아가는데 이러다 땅에 닿겠და 싶었어요. 조종사 얼굴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우리를 향해 쏘더라고요. 소를 데리고 가는 피란민들이 길에 가득 차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피란민들 사이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다고 여긴 거였겠죠. 정말 무지무지하게 퍼부어 대는 거예요. 하늘에서 총탄이 쏟아지는데 어떤 것은 빗나가고 어떤 것은 스쳐가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남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우릴 향해 쏘니까 무조건 북쪽으로 뛰어갔죠.

나는 아홉 살이고, 내 동생은 여섯 살인데 어린 걸음으로 얼마나 뛰었겠어요. 온몸이 달달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 더는 뛸 수가 없었죠. 얼마 못 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지명도 모르고 좌우간 지뢰도 터져서 길에 사람들이 죽어 있더라고요. 나무에는 파편이 사선으로 박혀있었고요.

지계를 진 채로 팔뚝이 하나 떨어져 나간 사람, 눈 속에 머리가 고꾸라진 사람, 이불 보파리에 깔린 사람. 여하튼 피란민들이 길가에

여기 자빠져 있고 저기 자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시신을 치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른들이 우리는 못 보게 했지만, 우리는 다 봤어요. 길거리에 가마니로 덮어 놓은 시체들을요. 어른들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들이라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가마니를 들추어 봤는데 두 발에 빨간 구두만 보이더라고요. 어떤 가마니는 부풀어 올라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장난삼아 가마니를 들춰 보았는데 보고 나니 무섭기는 했어요.

비행기가 날면 하늘도 으르렁, 지뢰를 밟으면 땅도 으르렁, 모든 게 다 으르렁거리는 세상 같아 두려웠지요.

달구지가 지나가면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고 누군가의 두개골이 짹 짹 갈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어린 나이에 목격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아홉 살짜리 사내아이가 피란길을 걷어가는 것 같은 꿈으로 느껴져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내가 잠시 그때의 아이가 되어서 다시 가보는 전쟁의 세상이지만 아득하고 안개처럼 뿌옇게 떠오르네요.

지금도 내 몸에서 그 피란길의 기억을 한시라도 지우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뿐이에요.

피란길을 떠났다가 다시 군하리로 왔는데 그새 우리 가족의 영혼은



놓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유엔군이 북으로 올라갈 때 용강리는 전쟁의 소리로 사방
이 으르렁거렸어요.

김주은 씨 이야기



포
탄 불
꽃 놀
이

나는 강령포 산밑 궁궐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가 마을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
내가 6·25전쟁을 겪었을 때 열 살이었지.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병원도 없고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었지.
그래서 우리 집은 피란을 떠나지 못했어.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피할 곳이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마을
에 남았어.

아마 우리 집만 남고 다들 피란을 나간 것 같아.

어느 날인가 미군들이 강둑 갈대숲을 헤치고 용강리 마을에 들어왔어.
피란을 가버린 빈집에 총을 쏘면서 말이야. 우리 집에도 총을 쏘았지.
엄마는 안방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 우리보고는 조용히 하고
움직이지 말라 하셨지. 우리 형제들은 벋단을 몸에 싸고 장롱 속에
숨었어. 숨바꼭질 놀이인 줄 알고 킁킁 웃었어. 근데 미군들이
가고 나서 알았어.

내 팔뚝에 총알 파편이 스쳐 피가 흐르고 있었더라고. 겁에 질려 긴
장을 했는지 피가 나는 줄도 몰랐어. 엄마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무명천으로 상처를 묶어 주셨지.

집 담벼락에 총알이 많이 박혀있었는데, 엄마가 있던 안방 쪽이었
어. 하마터면 엄마가 돌아가실 뻔했어.

그 후 개풍군에서 강 너머 미군 부대가 있는 곳에 포탄을 쏘기도 했어.

우리는 무슨 놀이를 하는 줄 알았지. 포탄 소리도 처음 들어 봤으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한 개 건너왔어. 두
개 건너왔어.” “와! 많이 날아온다.” 하며 누이랑 나는 뒷산에 올라
북에서 날아온 포탄을 세면서 재미있어 했어. 불꽃놀이 같았거든.
퓨웅하고 날아오다 척, 척, 척 소리가 나면 “이건 가깝게 떨어진 거야.”
슈웅하다 팡 소리가 나면 “저건 멀리 떨어진 거야.” 깔깔깔 웃으며



서로 알아맞히는 놀이를 했어.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불꽃을 보면서 우리는 신나 했지.

나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심장이 떨렸어.

돌무더기에 떨어진 불발탄 박격포를 주워 엿장수에게 팔기도 했어. 총알도 엿으로 바꿔 먹었지.

포탄을 가지고 놀다 화약이 터져 목에 상처가 나서 죽을 뻔했어.

그때는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탄을 장난감 삼아 놀았어.

지금 전쟁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누이와의 기억이 떠올라 누이가 그리우네.

하지만 용강리에서의 6·25전쟁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끔찍하지도 않은 것 같이 덤덤하게 기억되기는 해.

만약에 전쟁의 색깔이 뭐냐고 묻는다면 붉은 황톳빛이라고 떠올라.

문수산은 말없이 포탄을 맞아 주었는데 그래서 푸른 나무 하나 없이 민둥산이 되어 버렸지.

그래도 전쟁 중에도 용강리 마을 뒷산의 노을 풍경은 멋있었어.

1941년생 이우일 씨 이야기





3 점 짜 리 화 투 치 럽

여기 자박골에는 다들 집안같이 잘 지내.

내 이름은 윤순희. 아흔 살이지. 다들 왕 할머니라고 불러.

이인희랑 최미자는 동갑이야.

낮에 밭일하다가 더워지면 점심을 먹고 이인희 집으로 하나둘
모이지.

뭐 달리 할 것도 없고 셋이 모여서 화투를 치는 거야.

밥상 위에 모포 한 장을 깔면 화투치기가 참 좋아.

아픈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다 동전 지갑이 있어.
10원짜리 100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지.
그나마 이렇게 화투를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특pecially 치매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나는 동전 지갑에 이만 사천 원이 있어. 이걸 다 잃으려면 한 2년은
걸릴걸.
아이들이 동전을 모아서 가끔 갖다 줘.
우리가 화투를 칠 때는 3점이 끝이야.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아. 기껏 잃어봐야 한 판에 30원씩이지.
생전 서로 빠지는 일도 없어.
이웃사촌끼리 싸우고 살면 어떻게 한동네에서 얼굴을 보면서
살겠어.
그리고 시간 보내기에 이만한 놀이가 없어.
그냥 심심하니까 정신을 화투에 쏟는 거지.
사탕 하나 입에 물고 우물우물 스톱! 하며 화투를 치는 거지.
동네 이야기와 자식 자랑을 하면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빗자루로 골목을 쓸어 놓고
또 모여 화투를 쳐.
어떨 때는 똑같은 화투짝이 있어도 모르고 가져오지 못할 때도 있어.



우리가 늙어서 언제까지 화투를 칠지 모르지만 서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같이 화투를 치던 한 사람이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광 팔 사람도 없어.

이렇게 화투를 치다 서늘해지면 또 밭으로 가든지 각자 저녁을 해 먹으러 집에 가는 거야.

우리는 시끄러운 게 싫어. 그래서 개도 잘 기르지 않아.

똥도 치워야 하고 사료 사러 군하리 장에도 가야 하고 귀찮기도 해. 술도 먹을 줄 모르고 욕심도 서로 없어. 화투를 치면서 바가지 씌우는 것도 싫어.

어쩌면 전쟁도 인생도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지만, 우리네 화투치는 모습처럼 서로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해.

죽는 날까지 적당히 웃으면서 말이야.

최미자 씨 (1940년생), 윤순희 씨 (1932년생), 이인희 씨 (1940년생) 이야기

호미야기

6·25전쟁 때에도 호미로 농사를 지었어.

호미는 여자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아.

손목의 적은 힘으로도 풀뿌리를 쉽게 캐낼 수 있는 농기구이거든.

논에서 김매 때 쓰는 호미는 날이 큰데 논바닥이 물렁해서 잡초를 캐는 데 힘들지는 않아.

밭 호미는 날을 옆으로 눕혀서 풀을 없애는 거야.

마른 땅을 긁을 때 북, 북 소리가 나는데

나는 그 소리가 참 좋아.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경쾌하거든.



호미에 풀이 사라지면 황토 땅이 반질반질해지지.

그러면 내 시름도 없어지는 것 같았어.

바랭이, 쇠비름, 강아지풀 등 잡초가 있는데 나는 힘든 것이 바랭이 풀이야.

농사일 중에서 잡초 뽑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

자고 나면 생기고 뒤돌아서면 생기는 풀 때문에 오죽하면 풀과 전쟁이라고 했겠어.

풀은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맨날 긁어 줘야 해.

지금도 고추밭에 가서 밭을 매고 왔어.

호미만 보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동으로 호미를 들게 돼.

먹고 살려면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

풀을 뽑다 몸이 아플 때도 있어. 그러면 쉬었다가 또다시 밭을 매곤 했지.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극성이라고 했지만, 자식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

참! 농사일이라는 게 무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해야 하고 때를 놓치면 풀은 한 길이나 자라있어.

옛날에 시어머니께서 애들을 봐주고 나는 일만 했어.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이 나중에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태 일만 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관절통에 아프기도 해.
오래도록 사용해 닳아버린 호미 끝처럼 말이야.
까맣게 풀물이 들어 뭉툭해진 손가락을 사람들에게 내밀기도 쑥스러워.
엄마 손이 호미를 닳았다고 자식들이 안쓰러워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아이들하고 함께 살면서 공부 가르치고 그런 재미가 있었지.
나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거든. 애들도 착하고 박사 아들도 있어.
어쩔 땐 내가 평생 호미를 몇 개 썼을까 궁금하기도 해.
하나를 사면 3년을 쓴다지만 잃어버리면 또 사고 닳고 닳으면 또 샀지.
날카로운 호미 끝이 넓적해질 정도로 밭을 땀었으니까.

이인희 씨 이야기

용
못
의
사
랑

용강리 용못은
땅의 심장인가, 눈인가

용못이 천년을 품고 사랑했던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해 버렸다

용못에 뜬 해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달빛의 고요는
밤새 한강을 찾아 흘러간다

마을에 폭설이 내리고
강바람이 휘몰아쳐도
못물이 얼지 않는 것은

아직도 저 지하 고성에서
용못의 그리운 눈물이
끝없이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

5천 년 인간의 경작 DNA에 이끌려 농사를 지어 볼까 하던 중에 경기도에 강원도 같은 마을이 있다고 하여 용강리를 소개받았다고 해요. 15년 전부터 용강리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키우는 김기양 씨는 대한항공 기장이예요. 꿈을 꾸는 듯한 얼굴에 환한 웃음이 녹아있는 김기양 씨 텃밭에는 건강한 닭들과 계수나무 한 그루, 야생화가 알록달록 한창이에요. 김기양 씨가 용강리 마을에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자연경관이 좋고 문수산 자락을 바라보면 안락함과 편안함에 힐링을 받아서래요. 용강리 주민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농사일은 물론 어려운 일도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원주민들과 융화가 잘 안 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강리 마을 주민들은 다 좋으셔서 그 덕분에 제2의 고향 같다고 해요.

김기양 씨가 좋아하는 용강리 풍경이 있는데, 이른 봄 논물 위로 노을이 들고 좁은 외길에 전봇대가 십자가 행렬처럼 서 있는 모습은 경이로운 한 폭의 수채화 같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손님이 와서 용강리 철책선을 보여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북한을 보려면 강원도 철원 DMZ나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바로 강 건너가 북한이라고 하면 신기해했대요. 다른 곳은 산이 가로막혀 북한을 바로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평야 지대라 날씨만 좋으면 북한 마을이 잘 보인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쇼핑을 선호하고 그다음으로는 땅굴을 구경하는 건데,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유도가 있는 용강리는 한강하구 증립수역이라고 말하면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셨대요.

몇 해 전만 해도 대북, 대남방송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끄럽게 들렸는데 요새는 안 들리니까 참 좋다고 해요.

민통선이라는 곳에서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용강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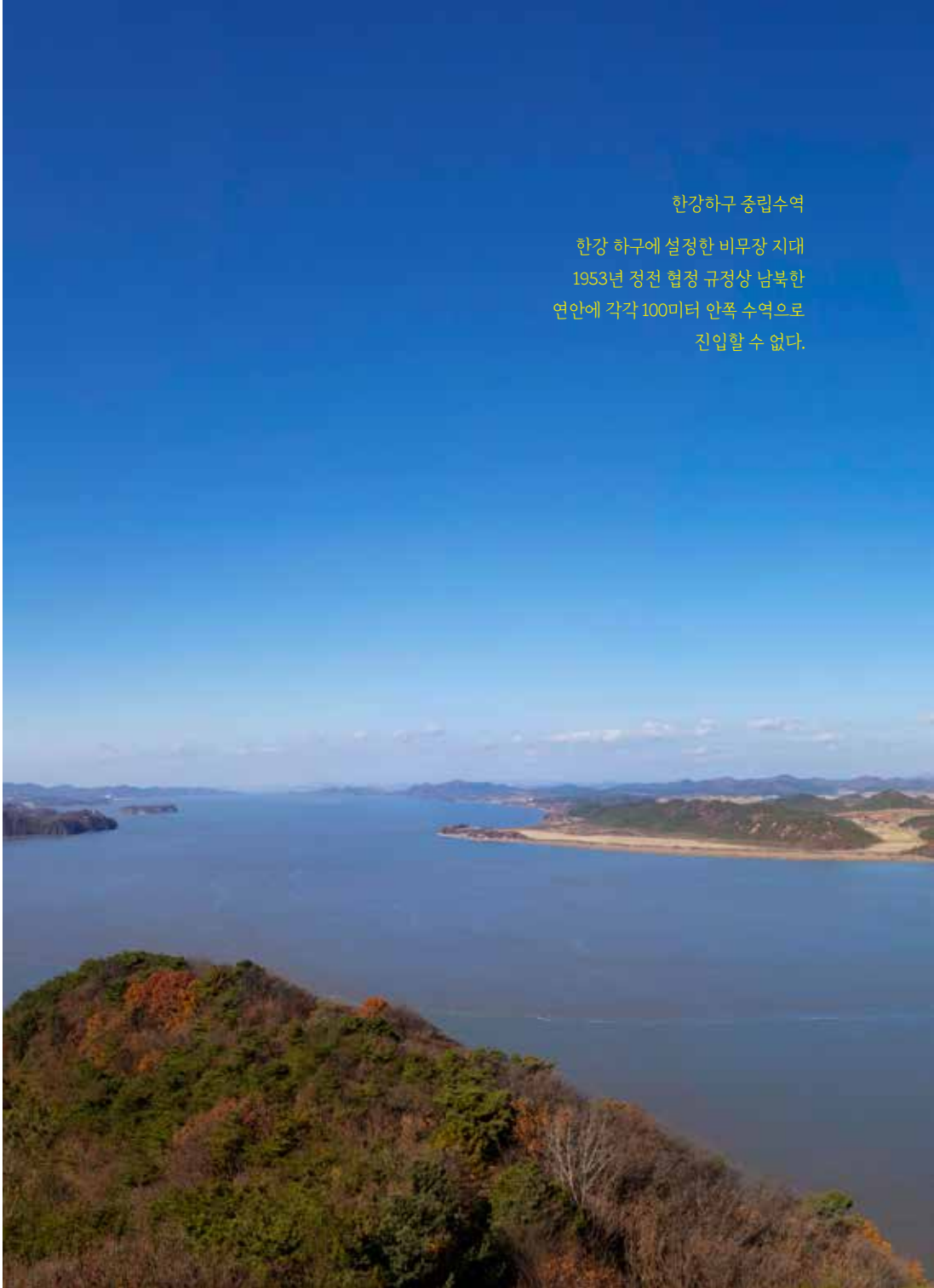
용강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강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거래요. 용강리에서 편하게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과 청정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용뚝, 강령포구의 옛 역사와 토속환경을 보존하여 용강리 마을 콘텐츠로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해요. 용강리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편한 것은 개선하고, 시멘트로 된 것은 예쁜 하천 돌로 바꾸고, 옛것은 복원하기를 희망하신대요.

진입로에도 용강리 지도를 부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 클릭하면 마을의 역사나 내용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역사가 살아있는 마을로 알려진다면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마을이 될 것 같다고 해요.

1964년생 김기양씨 이야기

한강하구 종립수역

한강 하구에 설정한 비무장 지대
1953년 정전 협정 규정상 남북한
연안에 각각 100미터 안쪽 수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일상을 색다르게 경험하고 없던 길도 찾아가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뮤지컬 배우에서 희곡기획 및 연출도 해보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동화구연가, 연극강사, 스피치강사로 활동도 했으며,

계간 스토리문학에 동화부문 신인상 당선, 김포문학상 대상 수상이후로

김포문인협회 회원이며, 지금은 동화작가, 시낭송가, 노래강사 등

교육 강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가끔은 무겁기도, 때로는 가볍게도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름답게 “다~ 예스!”라는 긍정주머니를 차고 있기에 늘 행복하다.

오늘도 허리춤에 매달린 행복주머니에는

함박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소한 마음들이 들어있다.

현재 사)대한예총 김포시지부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한사리 때
그때 그랬어
나의 애창곡 18번
봉성리 토박이
피란민들 사이에서
닭서리
그 세월을 말하면 뭘 해
전류리 새댁이야기 1
전류리 새댁이야기 2
황금들녘



한 사 리 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전류리포구 앞은 밀물이 소용돌이치는 한사리 때, 사람도 배도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군인들이 철책문을 열어주어야만 조업을 나갈 수 있고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동업하던 한 사람이 늦게 나와서 급하게 강으로 나가다가 배가 전복되었다.

물에 빠진 어부 둘은 가까스로 전복된 배 위로 올라탔다.

하지만 센 물살 때문에 또다시 물속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었다.

평소에 조업을 나가는 어부들은 가슴까지 오는 긴 장화옷을 입는다. 10년 넘은 베테랑 어부는 장화옷을 벗어서 한쪽을 묶은 후 바람을 넣어 튜브를 만들었고 이제 갓 3년 차 초보 어부에게 “죽기 전에 빨 리 장화옷을 벗어.”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중심을 잡지 못하던 초보 어부는 배에서 떨어졌고 물살에 쓸려나갔다.

다행히도 경비정에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장화를 벗어서 나처럼 했어야지!”

“형님, 신용카드 아시죠? 어제 처음으로 발급받은 비씨카드가 주머니에 있어서요.”

참 어이없는 말을 했다.

카드 한 장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다니.

그래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건지.

6·25전쟁 때도 벌레새끼처럼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했을까.



지금도 철책선 안의 작은 배들은 밀물을 기다리며 여름 햇볕에 말라가고 있다.

군인들이 철책문을 열 때 날아오는 갈매기들은
어쩌면 죽은 어부들의 녀인지도 모른다.

봉성호 선장, 베테랑 고영현 씨 이야기

그 때 그 랬 어

전류리 행운부동산을 끼고 왼쪽으로 골목길 맨 위, 끝 집에 1949년생 심경님 씨가 산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체격은 작지만 얼굴엔 웃음을 머금고 있다.

1950년 6·25때 열 살이던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피란 가던 길에 검단을 지나 내려가다가 아홉 살 사촌 여동생과 단둘이서만 다시 본가가 있는 김포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배고파서 굶어 죽느니 그냥 고향집에서 죽겠다는 생각이었다. 사촌 여동생이



뒤떨어져 걸어오면서 언니야 같이 가자, 소리쳤을 때 야, 이년아!
내가 언니지만 겨우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빨리 와! 하며 얼
른 오라고 재촉했다.

그 후 1년 만에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재회할 때까지 할아버지 댁
에 살았다. 작은댁 사촌들과도 어울려 살았기에 엄마 품이 그리지
는 않았다. 그러나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을 피해 가랑잎을 쌓아둔
곳에 숨어있는 날이 많았고 인민군들 얼굴을 봐어도 무섭기보다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어린 마음에 더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무지고 꽤나 활기찬 신여성이었다. 여자는 학교에 보내지
않던 그 시절에 부모님을 졸라 초등학교를 열일곱에 졸업했고 남
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는 이유로 온갖 시집살이를했다. 마음고생
시키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이 예순
넷에 글공부를 시작하여 드디어 시를 쓰는 할머니 시인이 되었다.

난, 동네 노인정에서 고스톱은 안 쳐. 돈 주면서 치라고 해도 난
싫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손사래를 치는 그녀의 작지만 당찬 손, 또박또박 써 내려간 팔십 평생의 생생한 기억들이 원고지에 고스란히 뿌리내리고 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3년씩 세 번, 전류리 노인회 회장을 했다는 1936년생 민선기 씨는
“내 특기가 노래야!” 하며 꺄꺄 웃었다.

노인회는 법적으로는 예순다섯이지만 예순 살부터 가입이 가능하
지. 명부에는 60명 정도인데 실제로 회관에 나오는 사람은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노인들은 취미로 고스톱을 치며 시간을 보내.
할아버지들은 100원짜리, 할머니들은 10원짜리를 치지. 재미로

치다 보니 크게 싸움날 일은 없어. 모르지 가끔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론 형님 아우하면서 사이들이 참 좋아.

전류리는 대부분 논농사를 지으니 모를 낼 때는 옆 동네에서도 20명씩 품앗이로 일꾼들이 오곤 하지. 그러면 손발이 착착 잘 맞아서 일이 수월하게 끝나. 아침 8시부터 일을 하면 10시쯤 되면 배가 출출하지. 그러면 동네 아낙들이 소쿠리에 새참을 이고 나와. 쌀이 귀할 때니까 국수에 막걸리가 최고야. 나는 한 그릇밖에 먹지 않았는데 힘이 장사인 친구들은 두세 그릇도 먹어치웠다네. 생각해 보니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인 깃발을 들고 노동요를 부르며 일했던 때가 그립기도 해. 그때 나는 북잡이를 했었거든. 참 신이 났었지. 힘든 줄도 몰랐어. 2년만 열심히 일하면 조그만 땅은 살 수 있을 정도였을 만큼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나왔으니까. 일은 고되었어도 젊었으니 더 좋았던 것 같아.

속병을 앓던 아버지가 6·25전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 해 돌아가셨기에 열여섯 살 때부터 농사일을 했지. 동생들 학교 다 보내고, 외갓집인 마송에 살던 동갑 아내를 중매로 만나 살고 있어. 내 나이 스물한 살 때 일이지. 지금은 2남 4녀를 낳아 출가를 다 시켰어.



아마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을 거야.

노인회장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단체여행을 다녀왔는데, 기억나는 곳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야. 전쟁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기에 확실히 기억이 나. 정말 가슴 아픈 곳이지. 난 그래도 전쟁을 몸소 겪지 않았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금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관광버스에서 내 아내의 18번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필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그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노래는 못 하더군.

“구름 머무는 고향 땅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구름 머무는 정든 땅에서 오순도순 살리라.”

‘너와 나의 고향’을 흥얼거리는 민선기 씨 얼굴에 고향인 전류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보
성
리

토
박
이

나는 노는 겨울이 좋아. 뱃일이 힘들지. 요즘은 배에서 노래방 마이 크로 노래도 불러.

논농사와 어부 일을 겸하다 본격적으로 어부 일만 하게 된 성춘호 선장 1963년생 서승석 씨.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은 장관이지. 밤새 술을 먹어도 조업을 나가면 답답함이 땀 뚫려. 술도 금방 깨지. 셋째 작은아버님이 어부셨어.



6·25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가 태워달라고 하면 다시 북한쪽으로 태워 주었는데, 거기서 매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 나도 처음에는 목선인 봉성6호를 운행하다가 대명항에서 사용되던 동력달린 성춘호를 사서 운행을 했지. 그러곤 요즘 다시 수리하여 고기를 잡고 있어.

강 한가운데서 있다가 배 밑바닥이 여기저기 뽕뽕 뚫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지. 여기를 막으면 저쪽에서 물이 새고, 정확히 어디가 새는지 모르지. 양수기로 물을 빼면서 겨우 물으로 들어오게 돼.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되고 부대에 무전을 치면 군인들이 나와. 군인이 철책 문을 열어주어야만 육지로 올 수 있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 오싹한 한기를 느낀다니까. 서승석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해뜨기 2시간 전에 철책 문이 열리면 나갔다가 열흘 동안 조업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7.93톤의 배로 새우와 황복을, 1.09톤 배는 승어와 참게 등을 잡아. 전류리는 봄에 황복이 많이 잡히지. 황복은 호텔에서 요리되는 고급 물고기야.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밀물로 올라와서 새끼를 낳는 회귀성을 갖고 있어. 그물코를 세고 도망간다고 할 정도로 빠르다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잡는 양이 최소



50kg~70kg, 최대 200kg 정도인데 식감이 끝내 줘. 가을에는 새우, 참게 등이 잡히고, 만선일 때는 너무 재미있지. 한숨 돌리고 나서 노을빛 봉성산을 바라보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져. 봉성리는 내 고향이거든. 벌써 59년이나 살았네.

어릴 적 봉성산은 땀값으로 나무를 베었기에 큰 나무는 거의 없고, 묘목이 작아서 친구들과 나무를 건너뛰며 전류리까지 놀러 다녔어. 사과밭에서 서리도 하면서 말이야. 봉성산에 날개가 달린 아기가 태어났기에 쌀 여섯 가마로 놀러서 죽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만큼 산의 기운이 세서 일본 식민지 때는 일본사람들이 쇠말뚝을 박을 정도였다고.

스물다섯에 친구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3년 연애하고 스물여덟에 결혼했어. 나는 어업을 한다고 했는데, 처는 처갓집에 양식업으로 어장을 한다고 했으나 봐.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을 했지. 옛날 흙집이어서 가마솥에 밥을 했으니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지금 전류리 포구에는 배가 25척이 있는데 30%가 조업을 하지 않아.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어부들은 알지. 그래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뒤늦게 나온 배는 다른 자리로 가야 해. 그게 규칙이지.
서로 상생하는 길이야. 한강의 유일한 포구, 전류리는 바닷물과 강
물이 하루에 두 번씩 교차하여 뒤섞이는 곳이야. 그렇게 위험한 곳
이지만 가족을 먹여 살린 내 터전이야. 봉성산 아래 자리한 봉성리,
전류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형제 같은 끈끈한 곳이지. 난 봉성리에
서 태어나 전류리에서 내 청춘을 바쳤네.

피
란
민
들
사
이
에
서

1946년생 성정순 할머니는 원래 김포 학운리가 고향이라고 말했다.

다섯 살 때였던가. 뒷동산에서 놀면서 보니까 우리 집으로 어른과 아이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야. 성동리 쪽에 사는 친척들이라고 했어. 마당에서 큰 솥에다 밥을 해 먹고 큰 명석을 깐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어. 어머니가 불을 피워야 하니까 솥방울을 주워오라고 했어. 나는 또래 친척들과 솥방울을 따며 산에서 재미있게 놀았고, 친구가 많이 생겨서 마냥 신이 났었지. 얼마 후 그 친척들이 보따리 하나씩 챙겨 들고 우리 집을 떠나기에 이상하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열두 살쯤 국민학교에서 6·25전쟁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 일을 엄마에게 물어보았더니 어쩔, 그 일
을 기억할 수가 있냐며 놀라셨어. 나에게 6·25에 대한 기억은 그렇
게 동네잔치 같았지.

전류리로 시집와서 알게 된 스무 살 넘게 차이나는 형님의 6·25 겪
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 전쟁이
나자 남편은 의용군으로 끌려갔대. 동네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
가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전라도 어느 친척집으로 내려가려고 길을
나섰지. 시어머니는 네 살짜리 큰아이를 손에 잡고, 그 형님은 돌
째 아이를 업은 채로 보파리를 들고 남쪽으로 무작정 친척들을 따
라 나섰대. 무더위에 등에 업힌 아이가 목마르다고 계속 칭얼댔대.
두레박 우물 앞에서 물 한 모금 먹이려고 긴 줄을 서 있었대. 한참
을 기다려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난 후 둘러보니 일행이 보이지 않
는 거야. 아이쿠, 큰일 났구나 싶어서 부랴부랴 사람들을 헤치고 남
쪽을 향해 무조건 걸어갔대. 얼마 가지 않아 폭격 소리가 났고 아무
리 찾아봐도 친척 일행은 찾을 수가 없었대. 그 형님은 모르는 사람
들을 붙잡고 어디서 온 아무개 못 봤냐며 큰아이 이름을 부르고 헤
매다녔던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 새댁이 미쳤나보다라며 안쓰러

워했다지. 결국 전라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김포를 물어 물어 올라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는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었다는군. 그러다 머느리를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뒤늦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거야. 피란민들 사이에서 이산가족이 되기로 정말 한순간이지.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건은 뭐 줄 알아. 부랴부랴 남쪽으로 향했던 시어머니 일행 중에 함께 피란 가던 집안 내 조카머느리가 업고 있던 아이가 열이 나면서 자꾸 울어대는 거야. 전쟁 통에 아이가 아픈 것을 얼마나 신경 쓸 수 있겠어. 일단 피란 가는 길이 더 급했지.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등에서 죽고 만 거야. 폭격은 계속되고 난리 통에 아이를 어디 묻지도 못한 채, 그냥 땅에 버리고 가게 되었다. 등 은 가벼웠지만 어디 마음까지 그랬겠어. 그때 그 형님의 시어머니는 네 살짜리 손주를 등에 업고 가면서 기운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졌대. 하는 수 없이 그 조카머느리가 그 아이를 업고 피란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제 아이는 죽었는데 친척 아이를 업고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말이야.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참으로 모순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 바로 그때였지.





답 서 리

전류리 마을 이장을 지냈던 1956년생 민대기 씨.

아버지는 1918년생, 어머니는 1924년생입니다. 아버님은 일본으로 징용도 끌려갔다 오고, 6·25 참전용사이기도 하지요. 다행히 몸 건강하게 돌아오셨고 우리 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전쟁 이야기는 많이 듣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 안타깝지만 대책선이 있는 건 정말 답답해서 빨리 철거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소환해달라는 질문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친구를 불러도 되겠냐며 되물었다. 10여 분 후에 도착한 친구 민경 두 씨와 민대기 씨는 우정어린 악수를 나누었다.

중학교 시절이었지. 통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약 30분 거리였어. 등하굣길에서 늦은 밤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곤 했지. 마침 소년가장으로 부모님이 없는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저녁밥을 먹은 후 그 친구 집에서 일고여덟 명이 모이곤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출출해지기 시작하지. 그럼 약속이나 한 듯, 집집마다 키우던 닭장에 가서 닭을 두 마리 정도 잡아 오는 거야. 밤에는 닭들이 울음소리도 내지 않거든. 물론 수탉들은 소리를 좀 내는데 밤에는 뵈는 게 없는지 조금 암전해. 그럼 우리는 잡아 온 닭의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맛나게 뜯어 먹었지. 닭다리를 빨리 낚아채는 게 장땡이었어.

겸연쩍게 웃는 민대기 씨는 자신은 겁이 많아서 망을 본 일이 더 많다고 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우리집 닭을 잡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물론 다음날 부모님들은 들짐승들이 잡아갔다고 생각하셨으니 들킨 일은 한 번도 없었지.”



가끔 짬뽕을 들춰보면 돌아다니던 닭들이 낳은 알이 있었지. 그러면 앞뒤에 이빨로 구멍을 내고 바로 먹는 거야. 엄청 고소했어.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니 달걀로 아이스계끼를 바꿔서 먹기도 했지. 맞아, 그때 그랬지.

친구!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럼없는 사이. 둘은 닭서리 얘기로 줄곧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세
월
을
말
하
면
뭘
해

그때는 선보는 자리에 나가면 물어보는 순서가 있었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저녁에 색시 자리가 더 예뻐 보인다고 어르신들은 밤에 선을 보게 했어. 그런데 말이야, 어디 사느냐란 질문에 ‘양촌면 학운리’라고 해야 하는 걸 너무나 긴장되어 더듬거리면서 “경기도 김포오군 학운리이 야양촌면에 사합니다.”라고 했어. 떨면서 거꾸로 대답했지 뭐야. 우리 집 양반은 틀리게 얘기한 줄은 모르고 본인도 떨면서 “아,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 남편은 스물아홉, 나는 스물일곱 살 서로 촌뜨기끼리 순진했던 시절이었지.

5월에 선을 보고 10월 가을에 전류리로 시집왔는데, 아이 셋 낳고 9년 만에 분가를 했어.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남편의 친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고 계셨던 거야. 남편은 머슴 중에 상머슴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일만 했지. 새 농지를 사면 새어머니가 당신이 낳은 아들 앞으로 등기를 다 해놓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바보같이 말이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께 따지고 들자, 시아버지가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땅은 남편 앞으로 해준다더니 그것도 달래느라고 한 말씀이셨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명의변경을 해주질 않았어.

남편은 스트레스를 다 나한테 풀었고,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도저히 못살겠다며 나는 몇 번이나 집을 나갔었지.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지 결국엔 어렵게 서류를 다 만들어서 부친까지 가서 접수하고 일주일 만에 남편 이름으로 명의변경한 등기부등본을 남편 앞에 딱 내밀었지. 남편은 “이게 진짜 내 것이란 말이야.” 하면서 몇 번을 들여다 보며 울먹거렸어. 그때의 남편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내 것이 되니까 더 열심히 일했지. 아침저녁으로 논 밭일을 하고 낮에는 도배 일을 배워서 했는데, 얼마 후에

는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하게 될 정도로 일이 많았어. 그때 돈도 많이 벌어서 아침에 은행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저금을 했지. 이 동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자가 되었으니 그 많은 세월을 말하면 뭘 해.

여기 좀 봐! 파리고추를 미쳐 따지 못해서 이렇게 빨갭게 되었네. 김장철이 다가오니 고추 따서 말리는 작업이 한창이야. 전류리 마을회관 옆에 건조기도 오랫동안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72시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지. 누가 맡아서 하려고 하질 않아. 시집와서 여태 농사일을 하고 있어. 요즘은 오히려 내가 경운기 끌고, 우리 영감은 농약 주고 밭일은 내가 다 하고 있네. 본인이 알아서 하면 좋으련만, 꼭 시켜야 한다니까.

마흔다섯에 운전면허를 따셨다는 일흔여섯 성정순 할머니는 저녁 노을보다 더 붉은 빨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며 오늘도 얼굴엔 보얀 미소를 머금고 논둑길을 달리고 있다.



전
류
리
새 이
댁 야
기
1

어판장 총무일을 했던 오선옥 씨.

그때가 스물다섯이었지. 25년 전 일이야. 우리 본가는 6·25 때도
피란가지 않고 전류를 지켰던 토박이인데, 나는 서울 이모님 댁
에 살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을 다녔지. 휴가차 잠시 집에 내려
왔다가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마침 아버지 손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왔어. 일주일 후쯤, 어떤 남자에게서 전
화가 온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본 손님이 본인 아버지라고

하더군. 그는 녀석들처럼 서울 잠실에 있는 사무실까지 퇴근 시간에 맞추어 매일 찾아왔어. 싫다는데도 말이야. 그래서 한번은 잠실 롯데월드 주차타워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나는 그곳이 어딘지 알지만 모른 척하며 시치미를 딱 떴었지. 그리고 기다려 봤거든. 그 남자는 거의 두 시간 만에 찾아와서는 화를 낼 법도 한데, 너무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 그래서 ‘참 무던한 사람이구나.’ 했지. 그때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나는 외국을 몇 번 다녀왔고 아예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그것을 이모와 이모부는 반대를 했어. 어느 날, 내가 이모댁에 가야 한단니까 그 남자가 극구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열결에 이모내외분께 인사를 하게 되었지. 때마침 이모부가 그 남자의 사주를 보시고는 이만한 짝이 없다고 하시며 밀어붙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 뭐야. 결혼 후 시부모님과 전류리에서 살게 되었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시아버님이 어머님을 하늘같이 떠받들었고 남편 또한 그것을 닮아 네 살 아래인 나에게 정말 자상하게 잘했어. 그게 나의 복이었어. 그런데 말이야. 세상일은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남편이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형님이 하는 정육점 일을 돕다가 다시 시아버님이 하던 어부 일을 시작했지. 난 살림만 했어. 남편이 고기를 잡아오면 시어머님은 포구에서 고기를 분리해서 파는 일을 하셨어. 그런데 시어머님이 가을에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다치신 거야. 그러다 보니 집에서 살림만 하던 내가 어머니가 하던 일을 한 달만 도우려고 포구에 나가게 되었지. 그렇게 시작해서 작년까지 해왔으니 24년을 포구에서 살았어. 생새우를 팔면서 말이야. 우리집이 전류리 포구에서 생새우를 처음 팔았어. 장사를 처음 해본 나는 아주 어설했어. 어머니 대신 직판장에 앉아 자리만 지키고 있다시피 했는데, 생새우가 팔리지 않아 상하게 된 거야. 비릿한 냄새도 너무 나고 당황한 나는 아무도 모르게 20관을 그냥 버렸지 뭐야. 그러고는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지. 노을은 지고 어스름 저녁 뱃고동 소리가 들리며 조업 나갔던 남편이 손을 흔들며 돌아오는 거야. 깃발은 왜 그리도 세차게 휘날리던지... 그때 울컥 서러움이 복받쳤어. 하지만 남편이 볼까 봐 얼른 옷소매로 닦았지. 그 일은 아직도 아무도 몰라.

대학까지 나오고 외국까지 다녀본 나였는데,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 그런데 옆친 데 댔친 격으로 강에

작업을 나가면 10일 만에 돌아오는 남편이었는데, 그만큼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기를 임신한 거야. 그러니 더 힘든 상황이었지. 그래도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며 자상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지. 힘들었지만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전
류
리
새 이
댁 야
기
2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날 이후, 난 생새우를 팔다가 남으면 소금에 절이기 시작했지. 물론 주문만 받았고 살 사람이 없을 때만 절여놓았다가 팔았는데 시어머님의 방법이 최상의 절임 방법이었지. 새우 소금 물을 2 : 2 : 1 비율로 섞는 거야. 맨 위에는 소금을 다시 덮었는데 “절여놓은 단지에서 새우가 까매지거든 다시 섞어라.” 하셨어. 그게 비책이었지. 절인 새우를 사가는 사람들이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열 명으로 점점 주문량이 늘어나는



한강 전류리포구

자연산
황피 김계 민물장어
송어 새우

거야. 너무나 큰 소득이 있다 보니 포구에서 일하던 다른 어판장 사람들이 너도나도 생새우 절이는 일을 따라하게 되었지.

시아버님은 봄에는 새우가 산란시기니 잡지 말 것을 당부하셨지. 그러나 전류리 쪽은 기후변화로 가을에 어획량이 확연히 줄기 때문에 산란새우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 산란새우는 비린 것이 흠이라 수염을 자르고 써서 말려 건새우로 변신시켰지. 나중엔 절인새우는 물론 건새우도 인기가 좋았어.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판매도 잘됐어. 힘은 들었지만 금방 돈을 벌었지.

그런데 말이야. 돈을 버는 만큼 목선을 운행하면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던 남편은 뼈마디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매일 술을 마셨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힘들고 아픈 고통을 참아내려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남편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자.’고 약속했고 그것을 지켜왔어. 술을 줄이기 위해 약 대신 장뇌삼 등 좋은 것을 많이 찾았고, 주위에 남동생, 친구 등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지.

그 사이 둘째 아이를 낳아 1남 1녀를 두게 되었는데, 큰딸이 엄마, 할머니 아프신 거 언제 나아? 엄마 일 그만하면 안 돼? 하며 매일 울고 매달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 그도 그럴 것이 새벽 4시면 집을 나갔었거든. 가까운 이웃집 언니에게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보채던 아이가 지금은 스물네 살이야. 자기 앞가림을 다 하고 엄마를 챙겨주지. 4년 전에 남편이 하늘로 먼저 갔어. 고생만 하던 사람.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행복이란 걸 알고 내 삶을 성장시킬 수 있었지. 어판장 총무일을 오랫동안 보았고, 지금은 어부들과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어.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늘 고민하지.

서북부 맨 끝의 유일한 포구인 전류리. 태어나서부터 내 가정을 일군 곳, 이곳에 사는 게 내 팔자가 아니겠는가 싶어.

예전에는 강서구 양천지역, 인천 검단지역도 김포에 속했어. 할아버지는 양천면이 고향이고 농사지으며 가축을 키우셨대. 도시개발로 많은 발전이 되었고 지금은 서울이 되었지. 아직도 작은집과 친척들이 모두 그쪽에 살고 있어.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이곳 전류리에 땅을 사서 열다섯 살인 아버지께 주셨다는군. 나는 아버지 따라 지금의 운양동에서 선산이 있는 검단 대곡동까지도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 그때도 황금들녘은 아름다웠지.

나는 1958년생이야. 10남매 중 아홉째인데, 6·25전쟁으로 피란갔다가 다섯은 죽고 5남매가 남아있었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어릴



적에 말썽꾸러기였어. 형 누나한테 버릇없이 반말했고 엄마한테 혼이 나면 할머니한테 고자질해서 나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께 혼나는 일도 잦았었지. 그렇게 철부지였어.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했고, 호기심이 많았던 것에 비해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기에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다해보라고 하시며 어른들은 믿어주셨지.

1937년생인 제일 큰형님은 나랑 스물한 살 차이가 났어. 형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의사였는데 형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의 로망이었지.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상업계를 입학했지만, 축산과 공부도 열심히 했어. 큰형님이 미국까지 가서 교수도 했거든. 형 덕분에 배운 점도 많아. 지금은 뇌출혈로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골수염으로 다섯 번을 수술했어. 병원에 있던 날이 많았기에 학업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지. 하지만 결국 고등학교까지 졸업 후, 스무 살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직접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큰 계기가 있었지.

고2 때, 놀러 가주시던 아버지를 따라 전라도 고창에 내려갔던 적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오랫동안 평당 500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임대로 450원을 주고 관리인을 둔 채로 인삼 농사를 지어 오셨다는 거야. 50원 차이나는 땅을 사면되지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누구도 내려와서 살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다는데, 나는 그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 그저 고창 땅의 흠냄새가 너무 좋았고 인삼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사를 지으셨다는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 욕심 없고 계산적이지 못하며 어리숙한 것이 나로서는 참 답답해 보였지. 그렇게 고창을 다녀온 후, 아버지에게 맡겼다가는 있는 재산 다 까먹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농사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거야. 물론 대대로 이어 온 땅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제일영농이라는 이름처럼 무엇이든 제일 잘해야 한다는 각오로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

내 눈에는 엄마도 늘 일하는 사람이었어. 정월에는 떡국, 칠월칠석에는 콩국, 1년에 두 번을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했지. 여기저기 퍼주기 좋아하셨던 분이셨어. 1월 1일 해맞이 행사 때 밥을 나누는 행사도 사실은 다 어머니의 베풀던 마음에서 비롯된 거야. 1999년 새해에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여덟 명이 모여 강화 혈구산에 올라갔었지. 준비한 떡과 음식을 일출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되었고, 그 후 해돋이를 보러오는 사람들과 소머리국밥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은 쌀로 대접하자 싶어서 떡국을 나눠 먹는 행사로 진행했지. 올해가 벌써 22년째네.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한 제품들도 반응이 참 좋아. 요즘은 웰빙이 대세니까.

넬모레가 정월대보름인데 아버지랑 달구경하러 봉성산에 올라가곤 했지. 황량했던 김포들판이 황금들펍으로 바뀐 것이 보여. 추수가 끝나면 기러기 떼, 청둥오리 떼가 날아온 들판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또 겨울에 빈 들판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앞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저 너른 땅을 언제 다 지어 볼 수 있을까요?” 어릴적 내가 했던 말이 생각나. 진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매번 느끼지.

이 땅에 숨 쉬는 것들은 아름다운 인연의 손길이 닿았기에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세월의 흐름 속에 풍성함도 싹트듯이 사람의 힘을 믿으며, 벼꽃 열매를 보는 정성채 대표의 주름진 이마엔 행복의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3대째 농사를 지으며 김포 들펍을 사랑하는 제일영농, 벼꽃농부 대표 정성채 씨.

벼꽃농부

로컬푸드
농촌체험학습



최영찬

다섯 번째
작가

소설가. 시민단체 활동가. 「도서출판 활빈당」을 운영하며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선비와 의적 소재의 작품을 통해 사회개혁을 꿈꾸고 있다.
김포에 정착한 후에는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향토애에
빠져있다. 창공을 나는 매의 눈으로 김포의 멋진 스토리를
먹이처럼 찾아다닌다. 밀물과 썰물이 조우하는 역동의
전류리에서 강물을 따라 흐르며 태고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음미해 본다.
그리고 그 역사는 나의 작품이 된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전류리 어부의 일상
전류리 The 어부
유빙에서 건진 송어
전류리 토박이와 이주민
야반도주
한밤중의 총격전
천장에 숨겨둔 돈
전쟁과 평화
아버지의 발자국



전류리 어부의 일상

전류리轉流里라는 이름은 물길이 거꾸로 뒤집혀 흐른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한강하구에서 밀려오는 밀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썰물이 여기서 부딪치며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이때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도가 낮아진 곳을 기수역汽水域이라고 해요. 하루에 두 번, 물이 밀고 들어왔다 나가며 두어 시간 잠잠해지는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전류리 선단 어부들은 이때를 기다려 바다와 강의 고기를 잡지요.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누산리에서 북방어로 한계선 근처까지만 조업할 수 있어요.



숙련된 어부는 고기 떼를 보고 그물을 내리지만, ‘참’에 맞춰 고기를 잡는 것이 안전하고 수확량도 많아요. 밀물 때는 3시간 정도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물 길이는 150cm 정도 되는데 강물 바닥에서 30~50cm 정도까지 내리면 물흐름에 따라와 그물에 코를 박은 고기들이 걸리지요. 겨울에는 송어가 가득 걸리는데 많을 때는 1t까지도 잡아요. 십몇 년 전에는 하루에 20t도 잡곤 했답니다. 새우는 안강망을 설치해서 하루에 두세 번 낚져 올리는데,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북쪽으로 쫓아가다 어로한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저지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날이나 안개가 잔뜩 낀 날, 북이 도발할 때는 아예 수역을 개방하지 않아 배를 못 띄웁니다. 이렇게 군에 의해 통제되는 북방 어로한계선이 있다면 남쪽으로는 전류리 어부들이 지켜야 하는 선이 있습니다. 전류리에서 아랫녘까지는 누산리 선단 등 다섯 개의 선단이 있는데, 미리 정한 구역에서만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선을 침범하여 어부들끼리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은 핸드폰으로 선단장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고기 잡이에도 평화가 정착한 겁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획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소규모 화공 업체에서 몰래 독극물을 배출해서 오염된 물 때문에 종종 기형고기가 발견됩니다. 또 비쩍 마른 고기가 잡혀 배를 갈라보면 플라스틱이 들어있기도 해요. 날로 나빠지는 한강의 환경오염을 빨리 해결해야 전류리 포구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태창호 선장 심미섭 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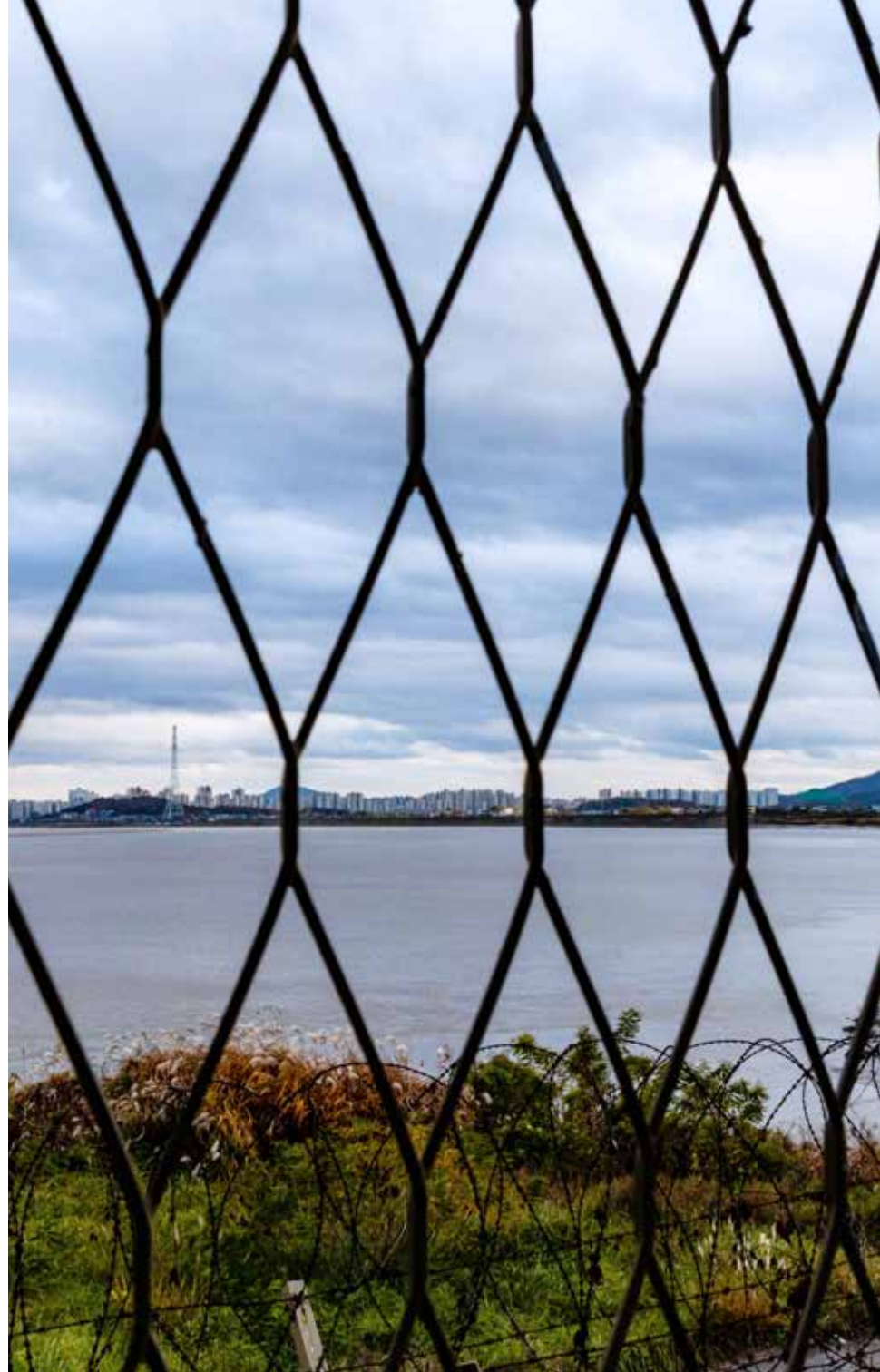
전류리는 역사가 오래된 한강 포구이자 남북의 접경지라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부가 잡은 고기를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횃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부딪친 ‘참’의 상태도 관찰하고 겨울에는 유빙에서 고기를 낚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자연환경에서 긴박했던 남북갈등의 이야기,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가 김포에서 가장 유망한 관광지로 명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전류리 The 어부

전류리 어부 심상록입니다. 1938년에 태어났으니 올해 나이가 여든넷이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이곳과 정반대 쪽에 있는 대곶면인데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나 먹고 살기 어려워 전류리로 와서 배를 탔습니다. 뱃일을 천대하던 시절이었지요. 빠른 물살에서 노 젓는 목선을 타야 했기에 힘도 들고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스물다섯이었습니다. 뱃놈 소리 들으며 남의 배를 이십년 동안 타고나서야 겨우 내 배를 마련했습니다. 집 한 채 값이었지요. 그때는 이 세상 모두 내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전류리가 마포에서 개성으로 가는 중간 기착지여서 주막이 있었다고 해요. 어업으로 유명해진 것은 6·25전쟁 이후예요. 조강의 여러 포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곳으로 몰려온 거지요. 기회가 많은 대신 위험도 많은 곳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 땐 바다보다 물살이 세요. 겉보기에 잔잔해 보여도 물속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참’에서 팽팽했던 균형이 깨지면 물이 거세게 밀려와 소용돌이를 이루는데, 아무리 큰 배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지요. 배가 뒤집어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면 고기를 잡는 일은 즐거워요. 사람들은 나처럼 오래 묵은 어부면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알 수 있을 거로 믿어요. ‘쪼매’라고 우리만 쓰는 말이 있는데, 하얀 거품을 몰고 오는 고기떼를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물을 던졌다고 해도 반드시 많이 잡는 것은 아니예요. ‘시간이 명당’이라고 어종에 따라 타이밍과 장소가 중요해요. 승어는 해뜨기 전에 많았다가 해가 뜨면 감쪽같이 사라져요. 이런 승어도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눈이 멀어 밤낚을 모르는데, 유빙 사이로 몰려 있어 잡기 쉽지요. 어종의 움직임과 잡을 때를 잘 아는 것이 베테랑 어부와 신참의 차이예요. 그래서인지 제 별명이 전류리 The 어부예요.



어부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장마가 저서 비가 오는 날이면 배를 띄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조업을 못 해요. 겨울에도 예전에는 빙판이나 유빙이 있으면 배를 띄우지 못했어요. 우연히 내가 유빙 사이에 그물을 던졌다가 송어를 잡고는 겨울 송어잡이에 눈을 뗐지요. 그물을 당겼을 때 송어가 줄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온몸이 짜릿해요. 농부가 벼 수확이 많으면 기분 좋듯 어부는 그물에 고기가 꽉 차면 힘든 것을 몰라요. 배를 타며 강바람을 맞는 것도 좋지만, 그물에 걸려 펄펄 뛰는 물고기를 보면 힘든 싸움에서 이긴 기분이 들지요. 그물을 내리고 몇 시간 동안 배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워요. 그때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도 하지만,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있어 강에 나오면 마음이 편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터이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배를 계속 타는 거예요.

전류리 어부 심상록 씨 이야기

전류리에는 볼 만한 것이 두 가지 있지요. 하나는 밀물과 썰물이 만나 뽕뽕해지는 ‘참’이고 또 하나는 ‘유빙流水’이에요. 유빙은 쫄쫄 언 바다얼음이 전류리 포구 앞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 때문에 부서져 떠도는 거예요. 떠도는 얼음조각은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해요. 일본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빙 축제로 관광객을 모은다고 하네요. 어민이 아닌 사람들은 볼만한 구경거리지만, 유빙 때문에 어민들은 배를 제대로 띄우지 못하지요. 고기 잡을 욕심에 배를 띄웠다가 유빙에 갇히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크레인을



동원해 배를 번쩍 들어 올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아니면 다른 배가 쇠빙해서 길을 터줘야 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유빙이 달라붙으면 꼼짝 못 하지요. 한 번이라도 유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한 어부는 몸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골칫거리가 전류리의 보물단지가 되었을까요? 우연이었습시다. 전류리의 최고참 어부인 심상록 씨가 고기는 잡아야 하는데, 유빙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하자 답답했나 봅니다. 얼떨결에 유빙과 유빙 사이에 그물을 한번 넣고는 당겼습시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에 송어가 잔뜩 걸려있는 겁니다. 퐁퐁 열기 전에 서둘러 송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뒤로 얼음으로 뒤덮이면 조업을 못 하지만, 반쯤 얼어있는 유빙 상태에서는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조업은 적당히 추운 영하 4~5도일 때가 적기예요. 유빙 사이에 그물을 내리고 추위에 손을 비비며 잠시 기다립니다. 얼어붙은 그물을 올리면 어른 팔뚝만 한 참송어가 팔려 올라오지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미리 끓여놓았던 바닷물을 그물에 뿌리면서 송어를 건져내요. 안 그러면 송어가 퐁퐁 어니까요. 그런 다음에 얼른 그물을 걷어 빠져나와야 해요. 유빙이 달라붙으면 그물도 망가지고 어부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점점 고기를 잡는 양이 줄어드니 외국처럼 유빙을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되려면 우선 철조망이 사라져야 해요. 김포시가 국방부와 협의한 대로 철조망을 제거해서 시야를 가리지 말아야 해요. 5~60 년대에 만든 포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관광객이 물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둘러친 철조망과 낡은 선착장을 보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유빙이 많을 때는 포구까지 쌓여 위험하기도 하고요. 멀리서라도 승어를 직접 잡는 모습을 본다면 최고의 볼거리가 되겠지요? 관람장을 마련해 관광객이 유빙 사이에 그물을 내려 승어 잡는 생생한 현장을 보고 난 뒤에 회 센터에서 승어회를 먹으면 환상적일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시다.

한강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대의원 오선옥 씨

전
류
리
토
박
이
와
이
주
민

전류1리 이장 김영남입니다. 올해 나이 쉰일곱으로 이곳에서 출생했습니다. 선대 어른들은 마근포리에 사셨는데 6·25전쟁이 터지자 뱃일을 배우던 스무 살 나이의 백부와 두 살 아래인 아버지는 입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할머니가 세 딸을 데리고 전류리로 오셨답니다. 이곳에서 남의 밭일을 도와주고 품삯으로 양식을 구해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백부 김성준 씨는 올해 아흔셋이신데,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편지로 알게 되고는 전역하고 전류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 배를 타신 거지요. 이곳은 원래 어업이 성하지 않았고 뱃놈이라며 어부를 천대하던 시절이었어요.

백부는 키가 크고 힘도 좋으셨습니다. 쌀 두 가마니를 거뜬히 지실 강인한 체력에 술도 2홉짜리 소주 열 병에 막걸리도 한 말을 마실 정도로 술꾼이셨습니다. 스물일곱에 노를 잡은 다음에 열심히 일해 마흔여덟에는 전류리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셨지요. 아버지도 백부와 함께 뱃일하다가 독립해서 배를 마련했어요. 고리채로 돈을 벌렸지만, 고기를 잡아 금세 갚을 수 있었습니다. 백부는 힘이 좋아 목선을 잘 다루신 데다 부지런하셔서 성공하셨습니다. 번 돈으로 논을 사들여 어업과 농사를 병행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거주지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는 매우 가난했지만, 어부가 되면서 낯선 동네에서 부를 일군 겁니다. 농사는 소출이 대략 가늠이 되는데 뱃일은 기대 이상의 수확을 얻을 기회가 많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논을 사고 재투자를 많이 했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부는 어부였지만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예요. 보기 드물게 프랑스식으로 집을 지으셨지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삼십 년 전 제가 결혼할 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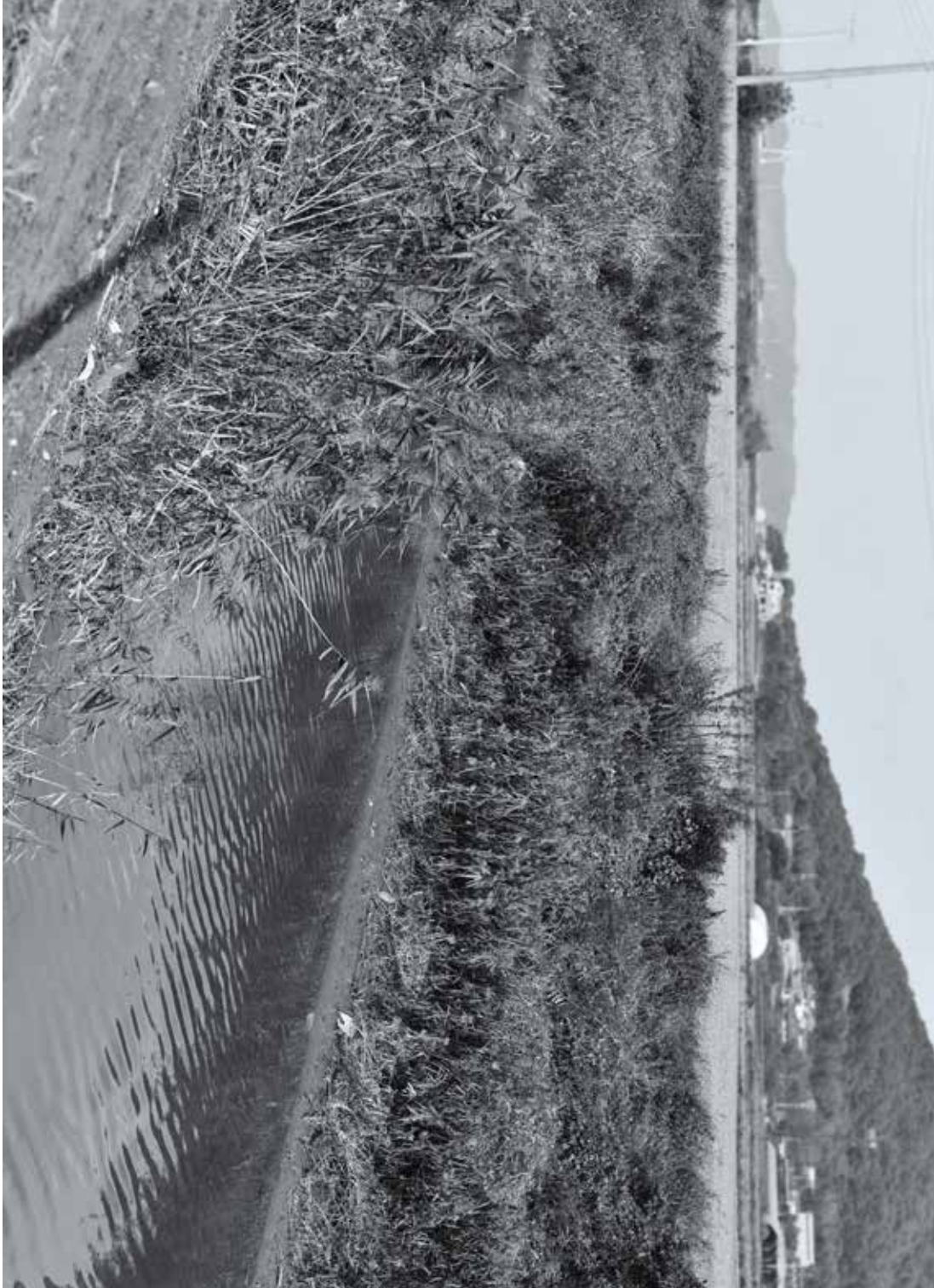
집을 지으셨어요. 벽돌은 공장에서 직접 구운 것인데 옥상을 활용한다고 평평하게 지어 모양은 좀 떨어지지요. 새로 맞는 며느리 편하게 해주시겠다고 집을 지었는데, 짓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백부보다 키도 작고 강한 체질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백부와 달리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피우셨는데 백부가 삼십년을 더 사셨으니 담배가 술보다 해로운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갔는데 몸을 다쳐서 전역 후에 휴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짓는 농사를 일 년만 돕겠다고 했는데 결국 복하지 않았습시다. 농토가 많아 농사를 주로 했지만, 배도 타고 개인 사업도 했습니다. 제가 전류리 이장이 된 것은 지역의 미묘한 역학관계 때문이에요. 전류리에는 민씨가 처음 이주해서 일군 동네여서 인지 전류리 주민의 80%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신씨와 정씨가 씨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지요. 주로 농사를 짓고 우리 집안 같은 이주민과는 거리를 두고 지역사회 일을 주도했지요. 민씨가 제일 많이 주도했고 신씨, 정씨가 번갈아 가며 이장직을 맡았지요. 그런데 이주민이 들어와서 토박이 대신 이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독점하던 이장직을 이주민의 자식으로 토박이가 된 저에게 물려준 것이에요. 저는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저를 찾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제 말만 하지 않아요. 일단 다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함께 어울려 사는 방도를 찾곤 하지요. 씨족사회처럼 성씨가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토박이와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면 우리 전류리는 크게 발전할 거예요.

전류 1리 이장 김영남 씨의 이야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아버지에게 여러 번 들으니 내가 겪은 일처럼 느껴지네요. 지금은 확성기 소리가 안 들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은 시끄러웠어요. 마근포나 시암리와 달리 전 류리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 정부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누가 믿나요? 그래도 사람들은 늘 긴장했지요. 배가 고장 나 북방어로선



까지 떠내려갔다가 간신히 구출된 사람도 있어요. 이곳은 썰물에 한강하구로 떠내려가다가 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5~60년대에는 북한 간첩들이 물때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나 봐요. 인천 앞바다에서 밀물이 일어나면 3시간 반이면 전류리까지 왔다가 돌아가니까요. 여기서 물 타고 내려오는 간첩을 놓치면 그냥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월북하는 코스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경찰과 군인이 엄하게 경계합니다.

어느 날 밤에 아버지(고상구 씨)가 전류리 북쪽에서 밤새 뱀장어를 잡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름이 쭉 끼치더라고요. 고라니가 가끔 풀숲을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월북하려고 물때를 기다리던 간첩이 아버지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가 인기척을 낸 거예요. 아버지는 겁이 잔뜩 났지만, 귀를 바짝 세우고 소리 나는 위치를 똑똑히 기억했대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뱀장어 조업을 끝내고 전류리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파견 나온 경찰들에게 알렸답니다. 즉각 출동해서 풀숲에 숨은 간첩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간첩을 신고한 공로로 훈장도 받고 포상금도 받았는데 친구들이 한턱내라고 해서 술값으로 모두 나갔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우리 동네 안보 지켰다고



치켜주는 바람에 한동안 들떴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고기 잡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김포 북단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고 해요.

“상구야, 북한 애들이 대남방송으로 네 이름 대면서 공작원 보내겠다고 하더라.”

그 말에 아버지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친구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급히 서둘렀습니다. 우선 형은 백부 집에 맡기고 저와 갓난아기인 막내를 업고 야반도주했어요. 연천 전곡리 시장에 ‘김포 쌀상회’라는 쌀가게를 내고 2~3년 하셨는데 정착할 즈음에 시장에 불이 나서 가게가 몽땅 탄 거예요. 남은 것은 불에 타지 않은 동전 몇 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거기서 굶어 죽으냐 공작원 손에 죽거나 그게 그거니까요. 아버지는 돌아와서는 두려움에 떨며 뱃일을 다시 했어요. 다행히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첩 체포 유공자가 된 덕분에 보안대에서 보호도 해주고 많은 편의를 제공받았지요. 고기가 안 잡힐 때는 보안대원이 동승해서 오두산 전망대 앞까지 가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대를 이어 배를 탄 것이 열다섯인데 벌써 오십 년이 지났네요. 그때 쌀가게가 불에 안 탔으면 내가 전류리 어부가 될 일도 없었겠지요. 아버지가 어린 자식 둘을 끌고 피신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공작원이 와서 해칠까 봐 두려운 것보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아니었겠어요? 요즘은 제가 당뇨로 눈이 침침해서 부표도 안 보이고 하니 아들이 나를 돕겠다고 배를 타요. 고마운 일이지요. 회 센터를 할 때는 아내가 회를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 허드렛일을 해요. 아들이 기특해요. 저도 그때는 공부하기는 싫고 특별한 기술도 없기도 했지만, 고된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돕고 싶어 배를 탄 거예요. 그때는 목선이라 노 젓는 일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어부들을 천하게 여긴 것은 늘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고 다녀서 그래요. 근육통으로 술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술이 약인 셈이지요. 이곳 어부들은 고기 잡는 게 힘들어서 좀처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 뱃일하던 아버지를 떠올리면 괜히 눈물이 나네요.

봉성호 선장 고영현 씨의 이야기

한
밤
중
의
총
격
전

제가 고향을 떠나 바깥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탄 것은 몇 년 안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사셨기에 전류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동네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철조망이 높게 쳐져 있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삼각형이었다고 합니다.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훌쩍 뛰어넘을 수 있으니 남파간첩을 막기에는 허술했지요. 그래도 철조망 밑에 조명 지뢰를 하나씩 달아 놓았는데, 건드리면 고리가 빠져 평하고 터지면서 환해진다고 해요. 물에 빠져도 터지면 불빛

이 환해지는데 이걸 보려고 동네 아이들이 밤에 몰래 고리를 뺀 다음에 물에 던지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간첩이 자주 출몰했다고 해요. 육지로 남북을 다니는 것보다 물때를 이용해 오고 가기가 더 쉬웠나 봐요. 아버지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전류리에 간첩이 나타나 총격전이 벌어졌다는군요. 지금은 제방도로와 논밭으로 바뀐 자리가 원래 섬이었다고 하네요. 사람은 살지 않고 갈대만 무성한 곳이었는데 서석근이라는 분이 배를 타고 지나갔나 봐요.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갈대숲에 군인 여럿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중의 한 명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하네요. 언뜻 보니 육군 대위와 부사관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슈, 이리 좀 와 보슈!”

손짓하며 오라고 했지만, 서석근 어르신은 조금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대꾸하고는 얼른 포구로 향했답니다. 그러고는 파출소로 가서 신고했대요. 이 지역은 해병대가 지키는데 육군 복장을 한 군인들이니 간첩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황당한 것은 파출소 순경이 말하기를 다시 가서 간첩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해병대가 사방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그 섬에 간첩이 있을 수 있는냐는 거지요.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한강 기동대가 출동했답니다.



섬에 접근하자 은신했던 간첩이 발각 난 것을 알고 수류탄을 던져 경비정에 탄 7명이 몰살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여단본부는 간첩임을 확신하고 해병대 군인들을 출동시켰습니다.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로 이들의 탈출을 막고 밤새 교전이 벌어졌답니다. 평. 평. 탕. 탕. 느닷없는 총성에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을 꼭 잠그고 별별 떨었답니다. 교전 끝에 간첩 두 명은 사살하고 한 명은 생포했습니다.

이 작은 섬은 한강을 통해 남북을 오가는 간첩들의 계류지였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노렸나 봐요. 간첩은 은닉한 무기가 있었지만, 녹이 슬어 사용하지 못하고 권총과 수류탄으로만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정을 탄 7명만 죽고 다른 아군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종료 후에 미군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노획한 무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군의 처분을 따라야 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곳으로 간첩이 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저도 배 타고 나갈 때 약간 신경은 쓰지요.

어부 고재석 씨의 이야기

천
장
에
숨
겨
둔
돈

남편이 강서구에 있는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할 때 저와 만났습니다. 전류리 어부로 있다가는 죽을 때까지 장가 못 갈 것 같아 색시감 구하러 시내로 나왔다고 해요. 제가 시집왔을 때는 깡촌이었지요. 남편이 전류리 땅이 모두 자기 거라고 뺏쳐서 이곳에 시집왔습니다만, 부부라는 것이 경제력보다 전생의 인연인 것 같아요. 좋아서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서울 아현동 출신이시지요. 여러 딸 중에서 유독 자기만 이곳 어촌으로 시집보낸 것에 불만이

많으셨나 봅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랜만에 딸이 사는 곳에 오셔도 차갑게 대하고 닭 한 마리 잡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시부모 두 분 사이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어려서부터 뱃일을 해서 그런지 고기를 잘 잡았는데, 어느 때는 오백만 원, 천만 원어치 고기를 잡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지요.

“오늘 그이가 잡은 고기를 팔아 천만 원 벌었어.”

세상에 운도 있지만, 어부들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버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고기가 잘 다니는 곳과 때를 가늠하고 그물을 던지는 숫자가 많으면 돈을 더 벌 수 있지요. 가끔은 엉뚱한 욕심이 앞서 횡재를 바라기도 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오래전에 횡재를 바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물때를 맞춰 띄운 배에 돌아오니 그물 속에 웬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풀어보니 권총과 칼 그리고 돈뭉치가 가득 들어있어요. 간첩이 흘린 것으로 단정하고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무기는 물에 빠뜨려버리고 돈 보따리를 옮기기 위해 선장과 어부가 쏘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다툼하고는 어부가 성을 벌컥 내더니 ‘뗏목’라

고 부르는 거룻배를 타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왜 싸우나? 하면서 혼자 가는 것을 무심하게 여겼는데 그때 돈을 숨기고 간 거지요. 혼자서 태연하게 조업을 한 선장은 일이 끝나자 동료 어부를 찾아가 돈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장은 돈이 물에 젖은 것을 보자 집으로 가져와 천장을 뜯고 돈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지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월북한 줄 믿었던 간첩이 우리 군에 붙잡힌 것입니다. 경위는 이래요. 남파간첩이 썰물을 타고 북으로 가다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자 옷을 벗고 인근 빨의 갈대숲에 숨었어요. 한강기동대가 순시하다가 갈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뒤지다가 팬티차림의 간첩을 붙잡을 수 있었답니다. 소지한 무기가 없었기에 대항도 못 해보고 붙잡힌 거지요. 보안대가 간첩을 취조하니 무기와 돈이 든 보따리를 잃어버린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물 속에 걸렸다니 어부 중에 누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지요. 보안대는 그날 조업한 어부 중에서 한 명이 이탈한 것을 알고 두 사람을 감시했습니다. 지목한 선장의 집에 숨어 들어가 감시하는데 선장이 아내에게 ‘천장의 돈이 말랐을까?’ 하는 거예요. 대화를 엿들은 보안대원들이 방으로 뛰어들어가 칼로 천장을 북 찢자 돈이 쏟아져 휘날려 돈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 돈이 휘날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 돈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간첩 돈이니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지요. 선장은 체포되고 공범인 동료 어부도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은 분배받은 돈으로 노름방을 드나들고 땅을 사려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횡재는커녕 재앙을 당한 거지요. 제가 이곳에 산 지가 삼십 년이 넘었는데 어부는 농사짓는 농사꾼보다 훨씬 수입이 좋아요. 힘들고 위험하다고, 뱃놈 소리 듣기 싫어 농사일을 택한 사람들이 진즉 어부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부린 대로 거두는 농사는 소득이 뻗하지만, 어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뱃일은 어떻게 잘 잡을까 궁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횡재 따위는 바라지 않아도 돼요.

유성자씨 이야기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니 집으로 돌아가 피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인
천 쪽으로 갔다가 길이 막혀 다음날 돌아왔지요. 인민군들이 가로
막고 피란을 막은 것이예요. 농사를 짓는 어른들은 피란 갈 마음도
먹지 못했어요. 그때 파주에서 배를 타고 전류리로 도강渡江한 국
군 패잔병은 지금은 독으로 변한 봉성산 앞 강에 총과 탄띠들을 버
렸습니다. 나중에 내무성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서 거둬가는 광경도
보았어요.



봉성리로 들어온 군인들은 이 집 저 집에 숨을 곳을 청했습니다. 대낮에 후퇴하는 군대에 합류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집은 마루가 낮아서 헛간에 대여섯 명을 숨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어머니가 밥을 지어 군인들에게 먹였습니다. 집에 있던 옷으로 바뀌 입은 군인들은 밤이 되자 밀짚모자를 쓴 농부로 위장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떠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군복을 아궁이에 넣고 태우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뒷간에서 군인 철모와 총알이 든 캡을 잔뜩 버리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집에 채석장에서 화약 다루는 일을 하는 박성근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국군을 숨겨 주었나 봐요. 깡통 모양의 수류탄을 통조림으로 잘못 알고 만졌다 폭발해 즉사하고 내 친구인 아들도 눈을 다쳤습니다. 그날로 우리 아버지와 마을 분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공산치하에서 동네 사람을 위해서기 일을 보셨는데 이것으로 부역했다고 학살당하셨습니다. 제가 살던 봉성리에서는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4 후퇴 때 피란 갔다 돌아오니 집도 폭격으로 홀랑 타버리고 옆 집과 공동 사육하던 소도 아저씨가 팔아먹고 없었습니다. 중공군은 총도 없이 방망이 수류탄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썰라썰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엄마 오 원에 팔아라.’ 하는 못된 말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닭을 잡을 때 피 한 방울 버리지 않고 잡았고 돼지비계를 솥에 넣고 볶음밥을 만들어 먹더라고요. 길에서 월북했다가 다시 돌아온 인민위원장을 보았는데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 것이 기억납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들은 다 피란하고 집에 남은 장애자나 노인으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국군이 올라오자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조강 쪽은 유병이 있어 건널 수 없기에 전류리에서 배를 타고 파주로 건너가 월북했습니다. 피란 못 가고 부역을 강요받았던 분들은 또 지서로 끌려가 문초를 받았지요. 똑같은 곳에서 남쪽 편과 북쪽 편으로 갈려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도 불타버렸으니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이 곳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은 자식을 기르겠다고 작은 집을 사고 홍수로 떠내려온 목재를 주워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 한편 인천에서 소금을 사다가 팔아 생계

를 이었습니다. 나는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봉성산을 넘어 한학자가 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는데, 교복 입고 중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보며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채석장 보조도 하고 관측소 짓는 일도 도왔는데 손재주가 있고 성실해서 많이 불러 갔습니다. 12시에 점심 먹고 꼭 한 시간 쉰 다음에 지계를 지고 나가니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시간을 알 정도였습니다. 열일곱이 되자 머슴을 두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돼지 기르고 소를 사니 살림이 피었습니다. 꾸준히 한학을 독습하면서 풍물패에 들어가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치 어제 일인 듯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남네요.

여흥 민씨 유수공파 회장 민경완 씨의 이야기

아버지의 발자국

나는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칠십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이십 대의 젊은 아버지 모습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6월 25일 천둥 치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민군이 쏘는 대포 소리였습니다. 피란도 가지 못했는데 마을에 날개 달린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날아온 폭탄은 박격포탄인데 왜갈왜갈 소리를 낸다고 해서 왜갈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와 창문과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 소리가 공명되어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인민군 대신 어디선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동네 구장을 맡고 계셨기에 낯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인민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지 못하자 낯선 사람들이 의용군을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미처 피란 가지 못한 동네 젊은이와 아버지는 목총으로 총검술 등을 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피란 가라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암소에 길마를 올려놓고 피란 짐을 꾸렸습니다. 나와 한 살 어린 고모는 암소 등에 타고 여덟 살 삼촌은 보따리 메고 할머니와 함께 인천 주안의 대고모택으로 갔습니다. 헛간에 들어간 할머니는 바닥에 명석을 깔고 그 위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총알은 명석을 뚫지 못하고 만약 명석을 뚫어도 이불이 다시 막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삼촌이 메고 온 보따리에서 백설기를 꺼내 먹었는데 파랗게 곰팡이가 피었지만 고픈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 달을 그렇게 헛간에서 보냈는데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이 인민군을 몰아내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역자로 지목해 경찰이 하성면사무소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판도 없이 한강으로 끌고 가 처형했습니다. 지금의 석탄리 배수펌프장 자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좌익활동을 한 경력이 없습니다. 단지 6·25전부터 마을 일을 성실하게 보는 구장이었습니다. 피란도 못하고 강제로 공산당에 협조해야 했던 선량한 주민이 우리 경찰에 의해 부역죄로 학살당한 것입니다. 후손들은 ‘빨갱이 가족’이 되어 손가락질당했고 사회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은 할 수 없었고 공직자도 연좌제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것은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도 김포시 공직 생활 때 몰래 사찰을 당했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흔적은 내 가슴 속 말고 또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집 앞 작은 다리에 아버지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 건너가시다가 남겼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발자국은 내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다리 위에 새 다리가 놓여 지금은 발자국을 볼 수 없습니다. 칠십 년 세월이 아버지 잃은 아픔을 감추어 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김포시장 강경구 씨

이종숙

여섯 번째
작가

갈 수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을 꿈꾸다 소설가가 되었다.
한 세계를 만드는 일의 어려움을 알지만 여전히 소설을 쓴다.
단편소설 「모크샤」로 등단 후 장편소설 『푸른 별의 노래』,
단편집 『아 유 레디?』, 여행에세이 『오늘은 경주』 외에
몇 권의 공저를 냈다. 법계문학상, 한국소설 작가상을 받았고
2020년 한국출판진흥원우수출판콘텐츠에 선정되었다.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덕포진 지킴이
보구꽃리 농부의 평화
철책선 위로 기러기는 돌아오고



덕 포 진 지 킴 이

김기송 씨 일상의 중심은 언제나 덕포진이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날, 해설사 사무실로 그를 찾아갔다. 코로나19로 현장학습이 금지된 탓에 덕포진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았다. 수학여행철이면 관광 버스로 가득 찼을 주차장이 텅텅했다. 전시관 앞 화단에 늦게 핀 개망초가 마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1933년생인데 수원에서 났어요. 세 살 때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1년여를 살다가 간도로 간 것이 여섯 살 때였는데 거기서 공민학교에 다녔어요. 조선, 중국, 일본 사람이 한곳에서 공부했고 농사를 짓던 부모님은 독립운동에도 관여했던 거 같아요. 1940년, 지병에 향수병까지 도진 어머니를 위해 간도에서 돌아왔는데, 한 뭉치나 되는 서류를 어머니가 태웠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지겹다면서. 간도에서 함께 지내던 이를 따라 김포로 왔는데, 80여년을 한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는 먹고사는 걸 해결하기도 벅창어요. 광복이 되는가 싶더니 6·25가 났고 열아홉이었어요. 의용군에 징집당했을 때는 집합지에서 배탈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과감한 탈출을 했지요. 그때 이사수 군은 징집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포로수용소에서 돌아온 이는 지금 요양원에 가 있어요. 마포고등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졸업은 하지 못했고 뒤늦게 군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잠깐 관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지만, 나하고 맞지 않아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어요.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었어요. 낡은 습속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크고 작은 분란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토박이의 텃세였지. 그래도 뜻을 접지 않았



어. 사람들과 화합하려고 볼 차기를 했어요. 노름이 일상적이던 마을 사람들과 새끼줄을 꼬아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했는데, 막걸리와 닭고기를 건 시합이 끝난 뒤에 어른들을 대접했어요. 축구공이 360원 하던 시절인데, 한 분이 500원을 내놓으셨고 그렇게 모은 돈이 1,600원이었어요. 그 돈이 말하자면 최초의 마을공동기금이 되었지. 사람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어 신명 학당을 시작했는데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재건운동,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로를 넓히고 수문을 만들고 덕포진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먹고사는 게 나아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손돌제를 부활시켰어요. 문화가 없는 나라는 융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충효와 역사교육을 했지. 그런 생각이 이어져 지금까지 문화지킴이로 활동하고 있고. 분단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애기봉을 보여주고 싶어요. 김포에 사는 사람으로서 강 건너에서 피란와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됐어요. 눈앞에 있는 고향엘 못 가니 오죽할까. 단절된 남북 교류가 아쉽고 답답하지만, 남쪽에서만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개풍이든 개성이든 그 땅을 걸을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 통일이 되면 북한 구석구석을 찾아가 보고

싶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덕포진을 보러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해설사 사무실에는 김기송 씨가 모아둔 자료들이 쌓여 있다. 쉴 새 없이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새벽 같은 삶을 산 그가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평화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김포 덕포진 | 金浦 德浦鎮

Deokpojin Fort in Gimpo

덕포진은 강화해협을 통해 수도 서울에 진입하려는 외세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전체면적은 48,794㎡로 이곳에는 돈대(墩臺)와 포대(砲臺)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679년(숙종5년)에 광성보(廣城堡)를 축성되었다.

병인양요때는 프랑스함대와 신미양요때는 미국함대와 싸웠던 곳이라 부르기도하며, 1981년 발굴과 복원사업으로 고정포대에 거포된 채 전시되어있다.

Deokpojin was a military stronghold set up to fend off the French at the Ganghwa-haehyeop Strait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place is sized 48,794m². It used to have an artillery fort simultaneously with Gwangseongbo and Deokjinjin Fort. In 1679 (the 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e nearby places in 1679 (the 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ere built. This is the site where fierce battles were waged against the French (French Disturbance of 1866) and against an American ship (American Disturbance of 1871). The nearby narrow strait called Deokpojin was used to place mid-sized cannons and one small cannons were placed at this historic place.

보
구
꽃
리 농
부
의
평
화

보구꽃리로 가는 길, 강가를 따라 세워진 철책이 눈에 들어왔다. 접
근을 금지한다는 붉은색 안내문 아래, 드러난 갯벌 사이로 물길이
흘렀다. 자동차를 타고 평화누리길을 달린다. 보건소를 짓고 체험
관을 짓는 마을이 나타났다. 커다란 농기계 창고 벽에는 담쟁이가
하늘을 향해 긴팔을 뻗은 채 물들고 있었다.

내가 1942년생인데 지금도 농사를 지어요. 강화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이사해 50년째 살고 있어요. 6·25가 터졌을 때는 덕적도 부근 살섬으로 잠깐 피했는데, 부모님과 다른 배를 탄 거야. 다시 못 만날까 봐 겁이 났었지. 다행히 금세 만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 다치거나 상한 이도 없었어요. 강화중학교를 다닐 때 교동도에 사는 친구와 가까워 가끔 놀러 갔어요. 다리가 없던 시절이라 배를 타고 갔는데, 다른 섬에는 통 가보지 못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던 시절이라 중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밭 한 자락을 팔아야 했지요. 그 시절에는 강화 땅을 팔면 김포에서는 두세 배로 넓은 땅을 살 수 있었어요.

젊을 때는 농사에 노동일도 했어요. 애들 셋을 가르치려니까 열심히 일해서 농토도 늘리고 아이들도 가르치구. 풍년이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었지. 전에는 간첩이 넘어오기도 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했지만 지금은 방송을 멈춰서 아주 좋아요. 전에는 어부들도 좀 있었는데 철책이 생기면서 없어졌고. 우리 애들이 잘 돼서 가족여행을 수시로 다니는데, 북쪽 묘향산과 지금은 닫힌 개성공단에 꼭 가보고 싶어요. 김포에서야 문수산이 좋지요. 등산로가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많이 변한 곳이라면 누산리 버스표 팔던 곳이에요. 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고 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에 비해 보구꽃리는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아직도 땅값은 제일 싸고. 변한 것이라면 60세 밑으로 농부가 단 두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우리는 평화롭게 잘 살지요.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보니, 김장하는 배추도 조막만 하고 북한 군인들은 잘 못 먹어 그런지 키가 작고 뼈만 남았더라구. 그때 확실히 알았지. 북한이 못산다는 걸. 북한에 퍼주면 폭탄이나 만들고 미사일만 만드는데 왜 도와주냐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도와주고 득 본 게 뭐냐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부자 나라고 한 동포니까 도와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통일되면 염화강에서 고기를 잡고 싶어요. 임진강 물과 한강물이 바닷물과 겹치는 자린데, 새우, 송어, 뽕장어 등이 아주 많아요. 20년 전에는 송어가 죽 끓듯 들끓었어요. 통일이 돼서 그때처럼 배가 드나들면 좋겠는데. 배고픈 동포들을 위해 쌀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는 일, 그것이 최송희 씨가 생각하는 평화다.



철책선
위로
기
러
기
는
돌
아
오
고

“허허, 난 까서 보일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던 정충헌 씨의 더없이 명랑한 첫인사였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올해로 일흔일곱이 된 그는 짧은 반백의 머리에 블루진을 입고 상의는 와인색 가죽 재킷을 입었다. 그 모습에서 결코 노년이라 할 수 없는 매력과 에너지가 넘쳤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친구와 여행 중이어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노라고, 그래서 열결에 이결 하게 됐다고 했다. 듣고 보니 인터뷰를 거절당할 뻔한 뒷이야기였다.

김포공항 바로 옆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하나였던 조부는 귀한 손자가 태어나자 공항 옆 동네를 떠나 제 외가가 있는 하성면으로 이주를 했어요. 일본이 패망하면 공항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섯 살이 되던 해에 6·25가 터졌는데 어린 나이였기에 전쟁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선명한 기억은 홍역을 앓은 일이에요. 1·4 후퇴 때 아버지가 서른다섯이셨는데 군대를 갔어요. 우리는 화곡동 큰할머니 댁으로 피란을 갔고. 거기서 홍역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지켜줄 아버지는 없지. 아주 겁이 났어요.

어려운 살림에도 부모님은 나를 김포중학교에 보내 줬어요. 그때 부농이 되겠다는 확고한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농업고를 마치고 농업전문대학에 진학했는데, 아버지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했으면 했어요. 졸업하고 잠깐 직장에 다니다 스물다섯이 되던 해 목장을 시작했어요. 송아지 다섯 마리를 분양받아 목장주가 됐고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목장을 일궈요. 한번은 철책선 안에 무성한 갈대를 베어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풀을 묶다가 농친 밧줄이 아버지 왼쪽눈을 친 거예요. 실명이 되셨죠. 아버지의 눈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철책을 보면 그 일이 더 생각나 가슴이 더 아파요. 그런 일을 빼면 참 감사하게도 나는 좋은 조건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오면 시암리 동녘 말에서 시작해 제방을 타고 쪽 석탄리 거쳐서 물이 뒤집히는 전류리 포구까지 철책선을 따라 걷는 것을 추천해요. 그쪽은 한강 하류라 강폭이 넓어요. 무엇을 특별히 생각하기보다 무조건 좋아요. 두 시간 반 정도 거리지만 평지라 힘들지는 않아요. 철새보호지구도 있는데 요즘은 기러기가 보기 좋아요. 3월까지도 기러기를 볼 수 있어요. 철책을 따라 걸으면 이게 뭔가 싶고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지요.

목장경영에서 은퇴한 그는 사랑희망나눔 회장을 맡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삶은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충만하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공부했다.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을 두루 거치며 뒤늦은 재능 찾는 데 이십여 년을 보냈다. 우연히 책을 읽고 서평 쓴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되었다. 여행에세이 『국립공원 힐링로드 77선』, 『오늘은 태안』 등을 공동 집필했으며 『도도한 여행 우이도』를 썼다. 2021년 한국소설에 단편소설 「스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소설가협회에서 발간하는 『2022신예작가작품집』에 단편소설 「푸른 옷 소매」가 선정되었다.

한국소설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고향이라는 이름의 평화
마지막 집
아버지의 손가락
세 번 살아난 목숨



고
향
이
라
는
이
름
의
평
화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내가 태어났어요.” 마을에서 제일 어린 축에 속한다는 보구곶리 이장 한경식 씨는 올해 일흔둘이 되었다. 큰 키와 꼳꼳한 자세에 청바지까지 받쳐입은 그는 나이보다 십 년은 젊어 보였다. 20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에서 만난 그와 그의 아내 이애자 씨는 인터뷰 내내 유쾌하고 따뜻했다. 실과 바늘처럼, 찌빵과 앙꼬처럼 인생길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에게 전쟁과 평화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후 몸도 못 풀고 피란을 가셔야 했는데, 갓난쟁이를 데려 갈 수 없어서 나를 가마니로 덮어 놓고 가셨대요. 누님들하고 형만 데리고 여기 문수산에 있는 작은 동굴에 피란가셨다가 이틀 만에 와보니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똥오줌을 그냥 다 싸놓고 말이지. 소 돼지 밥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금방 돌아올 요량으로 나를 두고 가신 거지. 갓난아기를 데려가면 울까 봐, 울면 걸릴 거고, 걸리면 다 죽으니까. 이 동네 나랑 동갑내기가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그 갓난쟁이를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애가 계속 우니까 아기 입에 주먹을 집어넣었답니다. 그 친구가 그때 하도 울어서 그런지 지금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하하.

그는 전쟁의 아픔이나 상처보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다.

이 앞이 다 우리 놀이터였죠. 봄 여름이면 운동장이었고, 겨울이면 썰매장이었어요. 찬바람에 손이 다 터서 짹짹 갈라지고, 옷은 누더기에 이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하루 종일 놀다 때 되면 집에 와 밥을 먹는데, 앉아서나 먹나? 그냥 서서 김치에 밥 한 덩어리 먹고 나면 또 나가는 거야. 썰매 타다 젖으면 불피워서 양말 말리고, 배고



프면 콩 따서 구워 먹고 그랬지. 입이 새카맣도록 까먹고 놀면서 해 지는 줄도 모르다가 소 풀 뜯기러 가야지 하는 생각에 집에 오면 소가 벌써 집에 와 있어. 그러면 어머니한테 또 혼나고 그랬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불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명쾌하게 답을 했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행정 시설 하나 없이 민간인만 있는 이곳에 뭐하러 포를 쏘겠냐고. 그릴 리도 없겠지 만 만에 하나 전쟁이 나 포를 쏜다고 해도 문수산을 넘어갈 테니 김포가 북한이랑 가깝기는 해도 더 안전하다고 했다.

한 발 밖으로 나가면 가시철책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래서 가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김포는 평화의 다른 이름이다. 문수산 골짜기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곳, 철새가 날아와 날개를 쉬는 넓고 넓은 들판, 옛날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 김포, 고향이 그에게는 바로 평화다.

마 지 막 집

그날은 일요일이었어. 내가 5학년 때니까 기억이 아주 생생해. 아침에 논에서 말뚝모를 매고 있는데 강둑 따라 여자들이 마구 뛰어 오는 거야.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면서. 오랑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그냥 따라 뛰었지.

임종한 씨는 수원까지 피란을 갔다가 17일 만에 돌아왔다. 그는 문수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다. 보구곶리에서 태어나 젊은 날 딱 한

번 외지 생활을 했을 뿐 여든넷이 되도록 고향을 지키고 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고마운 사람이 있다.

여기 해병대가 있어. 마을에 부대가 들어오니 다른 집은 다 철수했는데 우리집 한 집만 안 나가고 있었지. 어느 날 군인이 보니까 한 집 굴뚝에서만 연기가 나더라는 거야. 우리 군인이랑 미군이 와서 묻더군. 왜 나가지 않느냐. 환자가 있어 못 갑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셨거든. 미군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어머니를 고쳐 주겠대. 그 길로 앰블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군병원에서도 최고 꼭대기였나 봐. 근데 가서 보니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썩은 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해주려 했는데 워낙 오래 앓아서 엉덩이까지 썩은 거지. 자를 수도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이 민간병원으로 다시 데려가더라고. 거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지. 다시 집으로 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7, 8년 고생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뜨셨어. 지금 생각하면 고칠 수 있었던 건데... 밭에서 일하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때 무슨 약이 있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두었다가 염증이 생긴 거지. 어머니 생각하면 난 눈물이 나. 그 미군에게는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 한 게 아쉬워.

그가 몇 번의 맞선 끝에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서른 살 무렵이었다. 그보다 다섯 살 아래인 아내는 재봉을 배워 시내 큰 양복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살림이 별 볼 일 없었고 시골이잖아. 집사람이 안 들어 오겠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했지. 길면 삼 년, 짧으면 일 년 내로 나오겠다 장담하니까 정말이냐고 묻기에 정말이라고 했지. 가끔 거짓말이 약이 될 수 있어. 일 년 일 년 살다 보니 정감이 생기고 이웃 과도 친해지고 하니까 그땐 나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

재봉에 능숙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아내 소문을 듣고 군인들이 찾아와 군복을 줄이거나 수선을 맡겼다. 동네 여자들이며 아이들 옷도 많이 지어 주었다는 그의 아내. 두 사람은 김포의 끝 보구곶리에 서도 가장 끝 집에 살고 있다. 문수산 아래 마지막 집 임종한 씨는 마른 얼굴을 문지르며 말했다. “더 바라는 것은 없는데 더도 덜도 말고 아흔네 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탈하게. 욕심이겠지만.”







아 버 지 의 손 가 락

고영신 씨 집에 들어섰을 때, 햇별이 넉넉하게 들어앉은 텃밭에 무와 배추가 실하게 자라고 있었다. 벌레가 이리저리 뚫고 지나간 커다란 배춧잎은 그물처럼 열기설기했지만, 짙은 녹색을 한껏 벌린 모습이 죽히 한아름은 되어 보였다. 푸른 무청을 힘있게 올리고 땅속으로 뿌리박은 쏘얀 무를 보니 입에 침이 돌았다. 어머니, 올해 무 배추가 흉년이라는데 잘 키우셨네요. 인사를 건네자 고영신 씨는 그중 잘생긴 무 하나를 쓱 뽑아냈다. 한번 드셔 보실래요?





올해 예순둘이 된 그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직접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님에도 가끔 전쟁 꿈을 꾸다. 우리는 대남방송을 듣고 자랐어요. 삐라도 많이 주웠지요. 초등학교 2, 3학년쯤이었는데 하루는 간첩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갈대숲에 숨어서 총을 쏜다니 밤엔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한번은 친구들이랑 배를 타고 한강에 놀러 갔다가 군인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고 소리치기에 도망갔지요. 산에도 군인, 강에도 군인이 지천이라 무서워서 그 앞을 못 지나다녔어요. 아침마다 군인들이 열을 지어 뛰어가면 착착 쇠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릴 때는 여기가 너무 싫었어요. 매일 떠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여기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은 없는데 말이죠.

그가 몰랐던 전쟁은 아버지 손에 남아 있었다. 철이 들 무렵 아버지 왼손에 손가락이 두 개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잘렸다고 했다. 아버지가 여물을 썰 때면 왼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꽤나 애를 쓰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다. 누군가 나라에 요구

해서 연금이라도 받지 그러냐고 했을 때 아버지는 완강했다. 두 다리 멀쩡한데 왜 나라에서 돈을 받느냐는 말씀이었다. 고영신 씨가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팔려 씻지 못한 손은 겨울이면 트기 일쑤였다. 아버지는 그런 그의 손을 끌어다가 방금 쥘 여물 속에 푹 파묻었다. 뜨끈한 여물 속에서 잘 불은 손을 팔겨로 쓱쓱 문지르면 때가 말끔하게 벗겨지고 튼 것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곱 개 손가락으로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했다. 부지런한 아버지 덕에 그의 남매들은 포레보다 풍족하게 자랐다.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더 나빠지지 않고 오래 사시다가 편안히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고영신 씨 집 뒤에는 포구가 있다. 코로나19 전에는 그곳에서 막 잡은 송어나 물고기를 팔았다. 성업을 이루던 주변 식당은 문이 닫히고, 햇살을 받은 강 물결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포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때 다시 오라고 그가 인사했다. 밭에서 방금 뽑은 무처럼 시원하고 달큰한 미소였다.

세
번
살아
난
목
숨

만삭의 어머니 손을 잡고 피란 나올 때 김용규 씨는 다섯 살이었다. 새벽길 산중턱에서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북한군에게 걸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했다. 애기가 나오려고 해서 친척집에 가는 길이니 비켜주시오. 덕분에 무사히 조강나루까지 올 수 있었지만, 작은 배에 여러 명이 올라타려고 밀치는 통에 어린 그는 배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죽을 뻔한 것을 뱃사람이 건져 올려 간신히 살아났다. 그 후로도 그는 세 번의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

나무를 내다 팔고 연탄배달, 술배달을 하던 열다섯 겨울. 자전거에 연탄을 싣고 길마재고개를 넘어가다 눈길에 미끄러졌다. 그는 나동 그라졌고 연탄은 진눈깨비 위에 부서졌다. 어린 마음에 그대로 돌아가면 연탄값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목을 매었다.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가 나무에 묶인 줄을 끊어냈다.

쉬지 않고 일했지만,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써 놓고 무작정 부산으로 갔다.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부산역 귀퉁이에서 쪽잠을 잤다. 삼 일째 되던 날 어느 신사가 그를 판자촌으로 데려갔다.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기에 허겁지겁 다 먹고 났는데 신사가 말했다. 너는 얼굴이 곱상하니 여기 두 사람이 면도칼로 사람들 가방을 찢을 때 바람잡이를 해라. 그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가 버티자 대장이 나섰다. 나는 삼세번 이상 묻지 않는다. 못 하겠느냐? 못 합니다. 대장이 납땀인두로 그의 손목을 지켰다. 대답은 같았다. 이번에는 갈고리가 그의 머리에 꽂혔다. 이제 한 번 남았다. 못 하겠니? 못 하겠습니다. 대장은 손도끼로 그의 발목을 찍었다. 발목 흰 뼈가 드러나고 피가 솟구쳤다. 신사가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그의 발목을 감쌌다. 수건이 붉게 물들었다.



대장이 말했다. 저 새끼 죽여. 신사는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다. 밤바다에 파도가 철썩철썩 몸살을 했다. 나는 너 못 죽이겠다. 네 허리에 돌을 달아 바다에 던졌다고 할 테니 이 길로 부산을 떠나라. 신사는 그에게 돈 몇 푼을 쥐여주고는 돌아섰다.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밤새 걷다가 기다가 하수구에 거꾸로 박혀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어느 가정집이었다. 그와 동갑내기 아들을 키우는 부부가 하수구에 빠진 그를 꺼내 데려온 것이었다. 부부는 그간의 사정을 듣고 마침 자신들 가게에 일손이 필요하니 같이 지내자고 했다. 육 개월 동안 그곳에서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김포집을 가보니 말이 아니었다. 가족을 두고 다시 부산으로 갈 수 없어 부부에게 편지를 썼다. 그 집 아주머니가 김포에 올라와 상황을 보더니, 그간 월급 대신 모아둔 그의 뭍이라며 돈을 내밀었다. 자기의 마음을 보태 얼마간 더 얹은 액수였다. 그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제 그분들을 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노는 대신 양지바른 곳에서 책을 동무 삼아 지냈다. 힘든 세월을 견뎌온 것도 책을 통해 얻은 지혜 덕분이

라 말하는 그는 지금도 새벽이면 일어나 책상에 앉는다. 20년째 신협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며 230여 차례나 주례 의뢰를 받은 것만 보아도 지역사회에서 그의 덕망과 인품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도서관이나 군부대에 책을 기증하고, 어려운 이웃이 없나 살피는 그는 배고파 보았기 때문에 남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언젠가 그의 아버지는 애기봉에 올라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 강 건너가 고향인데, 내가 놀던 동네, 나무, 집이 있는 곳인데 내 고향 같지 않구나.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기억한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농사일이 끝나고 모두 모여 논두렁 밭두렁 음악회를 여는 것이다. 김포가 살기 좋고 인심도 좋지만, 문화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가 꿈꾸는 평화는 철책 너머 아버지의 고향에 까지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에필로그_

김포는
오늘도
안녕합니
다

-

민간인통제구역 '마을 골목 이야기' 발굴을 시작하고 봄, 여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떨어진 손끝으로 마무리 글을 씁니다. 아직 다 전해 듣지 못한 '전쟁과 평화' 이야기들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돌맹이처럼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났던 마을 분들 한 분 한 분 참 따뜻했습니다. 포탄의 상처를 보여주며 허탈하게 웃던 정해균 씨와 눈물을 흘리며 차마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지 말라던 어느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이 '골목 이야기' 책을 들고 마을을 여행할지도 모릅니다. 골목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을 우연히 만나 서로 위로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을 평화 이야기들이 개울 물소리처럼 멀리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웠던 작가들을 말없이 도와주신 마을 이장님들과 전류리, 용강리, 보구꽃리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라져 가는 민통선 '마을 골목 이야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원해 준 김포문화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작가 김두안

더 알아보기_1



김두안 작가의

용강리 마을 이야기 사전



[용강리 마을 이야기 사전]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으로 설정되어 있어 용강리는 민간인통제구역(民間人統制線) 안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강령포, 아랫말, 용림말로 구성되어 있었고 현재는 먼지락, 용림말, 새마을촌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그리고 새마을촌은 6·25전쟁 이후 조성된 '적 가시마을'이며 북한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대북 선전마을이다.

- **웃말** 용림말의 위쪽(남쪽)
- **아랫말** 용림말 아래쪽(북쪽)
- **건너말** 웃말의 남쪽 편
- **넘말** 건너말 남쪽 등성이 너머
- **먼지락** 용림말 동쪽 언덕 너머

〈강령포 시절 옛 이름〉

- **강녕포구** 홍릉동. 지금 강령포구 일대
- **용림말** 용연동. 용못 주변이며 강령포 주민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살던 곳
- **먼지락** 원평동. 강령포에서 보면 멀리 보이는 산 자락, 옛 강령포 주민이 이사와 사는 곳
- **보구곶리** 추현동. 용강리와 보구곶리 경계 고개를 '추재'라고 불렀다.
- **구슬프니** 옛 강령포구와 마주보는 산자락이며 '추재 고개'를 넘기 전에 있다.

〈용강리 성씨와 말씨〉

- **용강리 성씨** 경주 정씨慶州鄭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전주 이씨全州李氏
 - **용강리 말씨** 강화도 말씨와 개성 말씨를 섞어서 쓰고 있다.
- ex) 그랬으께~ / 드시겨~ / 그랬따이다.

〈마을 전설〉

- **용아가리** 마을 앞 산자락 끝이 용머리이며, 용머리에 작게 갈라진 곳이 용의 아가리다.
- **기숫개** 물이 너무 좋아 물이 들어간 한자, 계溪와 수水를 사용한 계곡이다. 겨울에 어부가 기숫개 물로 얼음을 만들어 봄에 잡은 생선이 상하지 않게 운반했다.
- **고래굴** 배미골 굴에 호랑이가 살았었다는 전설이 있다.
- **선유재** 배미골에 넓고 평평한 자리에서 옛 선비들이 놀았다고 하여 선유재라고 부른다.
- **송 대장과 백 대장 묘** 송 대장과 백 대장이 이곳에 살면서 서로 힘과 지혜를 겨뤘다.
- **머무루섬** 먼 옛날 한강에서 섬이 떠내려와 머물러 있다는 '유도留島'의 전설이 있다.

〈골 이름〉

- **부처골** 마을 뒷산 절터에 부처 돌상이 있었다.
- **흥니골(흑룡골)** 마을 뒷산에 흥룡사가 있던 절터에 스님이 사용했던 깨진 돌절구가 있었다.
- **해룡골** 배미골 갈래에 속해 있는 골이다.
- **쇠지기골** 성동리 쪽에 있는 골이다.
- **통배골** 알 수 없다.
- **배미골(백운골)** 붉은 뱀 까만 뱀이 많은 골이다.

- **장자골** 부자들이 사는 골이며 6·25전쟁 때 부자들이 우물에 재산을 숨기고 떠났다고 한다. 나중에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우물을 파보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 **싱아골** 식물 싱아가 많았던 골이다.
- **해골골** 아주 옛날 해골이 많았다는 설이 있다.
- **용뿔골** 용림말 용뿔이 속에 있는 골이다.
- **고사리골** 고사리가 많은 골이다.
- **자박골**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가뭄에도 물이 자박자박 흘러내려 생겼다는 설이 있다. 지금도 용림말 사람들이 자박골 물로 밥을 짓고 농주를 만들고 있다.
- **샘골** 물이 맑고 맛있는 샘이 있던 골이다.
- **궁골(궁궐)** 활처럼 생겼거나 궁궐처럼 아늑했던 골(마을 사람들의 추측)
- **구슬프니** 병이 들어 죽은 아이들을 묻어 준 골, 고려장 터가 있었던 산자락
- **밭골**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골이다.
- **돌목골** 돌목논이 있던 골이라 추정된다.
- **소골** 동네 앞산 용의 아가리 너머에 있는 긴 골짜기
- **두무골** 마을 정면 건너편 군부대가 있는 골짜기

〈마을 지명과 문화〉

- **강령포** 용강리 43번지다. 마을 서북쪽에 있는 옛 포촌浦村이다. 약 해발 30m이다. 마을 당산이며 용왕신에게 당제사를 지냈다. 1850년경에는 약 300여 가구가 살았으며 한 국전쟁 이전에는 60여 가구만 살았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중요한 포구로 인식되었던 강령포康寧浦는 휴전 이후 마을이 강제 소개疏開되어 지금은 해병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 **강령개** 강령포 주변 갯벌 해안 일대다. 용강리 앞 조강 강가에 있던 옛 강령포의 이름이다. 경복궁에 왕이 거처하는 곳을 강녕전康寧殿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살기가 좋아 하여 편안할 강康 자와 편안할 영寧 자를 쓴다.
- **당산** 당산은 마을 입구에 낮은 산이며 주민들은 이곳을 동녘을곶이라고 부른다
- **당제사** 당집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당제를 올렸다. 그리고

벃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당집에서 고사를 지내고 음식으로 주민들을 대접하였다. 당제는 용왕제龍王祭라 불렀다.

• **강령포나루**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세곡선들과 각종 화물선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해 거쳐 가던 나루터였다. 한강과 임진강의 물이 바닷물과 만나는 기수지역汽水地域으로 승어, 뱀장어 등 어자원이 풍부했다.

• **노구여** 강녕개 앞 한강에 있는 큰 바위 여의 이름이다. 주민들은 노균여 또는 노곤여라고도 불렀다. 이 여를 지나다 배들이 자주 부딪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다.

• **강령포 연락선** 6·25전쟁 이전까지 강령포구에 연락선이 다녀갔다. 인천의 섬들과 김포의 고양포구 등을 거쳐 북한 해주로 가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다. 그리고 연락선은 썰물 때 강령포구에 정박해 있다가 포구 앞 큰 바위(노구여)가 밀물에 잠기면 떠나갔다.

• **조강** 祖江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가 만나는 곳부터 용강리 앞까지 조강이다. 조강은 용강리 앞에서 염화와 예성강 쪽으로 갈라져 흐른다. 조강은 이제 강물이 할 일을 다 하고 늪었다 하여 할아버지 강으로 불렀다. 아주 옛날에는 조강의 번성한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외세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막아냈던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 **조강과 책력** 고려시대 때부터 조강의 책력은 물때표 기준으로 유명했다. 그 이유는 조강의 밀물과 썰물 시간이 절기에 따라 가장 정확했다고 한다. 그래서 선비들이 조강의 책력을 꼭 참고해서 과거시험을 보러 길을 떠났다고 한다.

• **이기울** 과거 용강리를 ‘이기울’이라고 불렀다. 인근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용강리는 몰라도 ‘이기울’은 모두 알았다고 한다. 이기울이란 명칭은 예전 고려시대에 이계월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마을에는 ‘이계월의 묘’라고 알려진 곳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계월의 실제 묘인지에 대해서는 마을 내에서 논란이 있다.

• **당고개** 용강리 마을 동쪽 입구의 낮은 산 고개다. 당고개를 넘어오기 전에 용강리와 조강리 길이 갈라진다. 사람들은 당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돌을 던져주며 소원을 빌었다. 옛날 당고개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 **산적** 옛날 마을 동쪽 입구 산속에 산적이 있었다. 산적들이 숲속에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소를 판 돈을 빼앗아 갔다고 한다.

• **용못(용연)** 고려시대 후기 어느 날 마을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때 연못에서 천년을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해서 용못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까지 마을 사람들이 '용못고사' '기우제'를 지냈었다. 연못의 물은 사계절 모두 똑같은 양이 솟아나 16℃ 온도를 항상 유지한다. 용못의 물은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겨울 물새들이 밤마다 잠을 자다 간다. 그리고 6·25전쟁 무렵까지 용못가에는 오리나무 세 그루와 커다란 미루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미루나무는 문수국민학교를 지을 때 베어서 대들보로 썼다.

• **전통 농주** 어느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지 알 수 없다. 지금도 용림말에서는 자박골 샘물로 할머니들이 농주를 만들고 있다. 맛 좋은 농주는 외지인에게도 인기가 많다.

• **두고개** 용못이 있는 용림말에서 먼지락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두고개라고 부른다. 그 고갯마루 집들이 '새마을촌' 즉 '적 가시마을'이다.

• **방공호** 새마을촌 집들 지하에는 방공호가 있다. 전쟁이 나면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

• **새다리목** 용강리에서 보구꽃리로 가는 강녕로 길목이다. 용림말 용못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면 작은 사거리를 만나는데 그 자리가 새다리목이다. 갯골을 타고 배가 들어왔던 옛날 나루터 자리에 용못의 물이 흘러 내려와 고여 있다.

• **매화마름** 아주 먼 옛날부터 용못 아래 논에서는 희귀식물 매화마름이 살고 있다. 다른 마을 매화마름은 뿌리에 소뿔처럼 생긴 까만 열매가 달리는데 용강리 매화마름은 그냥 꽃만 피는 특이한 종이다. 5월에 별 모양의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 **추재 고개** 보구꽃리(옛-추현동)로 가는 고갯마루다. 용강리 서쪽 끝이며 성동리와 강화도를 가려면 지나가야 한다. 예전에 아이들이 문수국민학교를 가려면 추재 고개를 넘어 다녔다.

• **구슬프니** 추재 고개를 가기 전에 왼편에 완만한 산자락이 구슬프니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 깨진 기왓장과 사기그릇, 조개껍질이 많이 발견된다. 옛날엔 구슬프니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었다고 한다. 고려장 터와 무덤 등 용강리의 슬픔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곳이다.

• **고래굴** 용강리 마을 뒷산 배미골에 있는 굴.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었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6·25전쟁 때 마을 사람들이 고래굴 속에 숨어 있었다.

• **벼락바위** 배미골을 따라 선유재를 넘어가면 큰 '벼락바위'가 나온다. 바위는 가운데가 크게 쪼개져 있는데 벼락을 맞은 흔적이라고 한다.

• **흥룡사 터** 1530년(중종 25)에 용림말 남쪽 문수산 계곡에 있었던 절터로 지금도 기와 파편이 흐트러져 있다. 특히 묘사채로 추정이 되는 터에는 아주 작은 돌절구가 남아 있었다. 용강리 마을 사람들은 절에 빈대가 많아서 종이 절을 버리고 갔다고 전한다.

• **용호사** 1530년(중종 25) 문수산 용림말 배미골에 용호사龍虎寺가 있었다고 한다.

• **송 대장과 백 대장 묘** 예전 용강리에 백 대장과 송 대장이 있었는데 두 대장이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겨루었다. 두 대장이 능력을 겨룰 때는 말발굽 소리와 말에 달린 요령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송 대장이 있는 묘는 사라지고 없지만 송 대장 묘가 있는 곳을 '송산'이라고 부른다. 백 대장의 묘는 지금도 자손들이 찾아와 묘를 관리하고 있다.

• **용의 아가리** 마을 앞산이 용이며 용머리가 강가까지 길게 뻗어 있다. 용의 머리는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다. 옛날 어느 스님이 강령포는 개구리 상이어서 절대 용이 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갯골에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휴전선이 생기고 군부대에서 갯골에 출렁다리를 놓았다. 그런데 정말 60가구가 넘던 강령포 마을이 사라져 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 때 피란을 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다. 지금 일부 사람들만 용강리 먼지락에서 살고 있다.

• **도둑굴산** 용림말 동북쪽 조강과 경계지점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서편에 있는 굴을 도둑굴이라고 부른다.

• **용강리 도깨비** 용강리 도깨비는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도깨비는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 길을 지을 수 있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밤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산을 헤매게 한다. 용강리 도깨비는 수줍음이 많은 장난꾸러기다.

• **들넉 수문** 마을 강변에 여섯 개의 수문이 있다. 지금 농업경영인 이영범 씨가 관리 한다.

- **유도**留島 주민들이 '머무루섬'이라고 부른다. 용강리 별판에서 서북쪽으로 한눈에 보인다. 1996년 가을 흉수 때 북한에서 소가 떠내려 와 살고 있었는데, 1997년 1월에 해병대가 구조를 한 일이 있다. 그 소를 '평화의 소'라고 부르며 남북한 통일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때까지 문수국민학교 소사를 지낸 사람의 집안이 유도에서 약 3000평 정도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휴전선 안에 있는 유도는 지금도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평화의 섬이다. 하지만 유엔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섬은 게 모양이며, 뱀과 학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섬 서쪽에 갯이를 알 수 없는 동굴이 하나 있다.

- **치군패 놀이** 한강하구 조강포, 강령포, 마근포 뱃사람들의 농악 놀이다. 치군致君이란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이다. 정월 대보름 강령포의 치군놀이는 3단까지 무동을 엮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

- **보름놀이**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제기차기, 윷놀이
- **제사문화** 용못고사(기우제), 가정고사, 당제, 산신제, 장승제
- **전통음식** 마을 전통 농주
- **보존식물** 매화마름 (2급 보존식물- 용강리 서북쪽 눈에 자생)

〈논 이름〉

- **쌀뚱배미 논 96번지 일대** 가을에 추수를 하면 유난히 쌀이 많이 생산되었다.
- **오막손이 논 70번지** 유래를 알 수 없다.
- **울채골 논 115번지** 겨울 동안 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논에 가두어 놓았다가 봄에 메마른 논에 물을 보충해주었다. 그러다 보니 유난히 울쟁이가 많았다.
- **국정배미 논 227-5번지** 백 서방묘막이 있던 자리이며 구정물이 많이 흘러내렸다.
- **명의 논 133-2번지** 지명 유래 알 수 없다.
- **하선달방죽 논 130-2번지** 하선달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 **돈염넙두리 논 130-50번지** 성둑처럼 생겨서 흉수가 와도 끄떡없는 논이다.
- **젓마당 논 15번지** 옛날 어부들이 새우젓 독을 쌓아 놓았던 자리다.

- 갈가마 논 130-1번지 갈나무 껍질로 그물을 오래 쓸 수 있게 물들이던 자리다.
- 출마당 논 14-2번지 옛날 어부들이 밭줄을 엮어 만들던 자리다.
- 양품배미논 7-5번지 양품 냄비처럼 생긴 논이다.
- 기숫개 논 130번지 일대 이곳 물이 깨끗해서 겨울에 어부들이 얼음을 만들었다.
- 응당배미 논 143번지 응당이처럼 유난히 깊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논 141-142번지 1950년대까지 장승이 서 있던 자리다.
- 이기울방죽 논 146번지 이계월 기생이 농사를 지었던 논이었다고 한다.
- 낭아래논 140-150번지 지역 이름 또는 내 터에서 내려다 보이는 팔립 논의 이름이다.
- 양해 논 130-5 어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 평지 논 136번지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물새 논 170번지 주로 못자리를 했던 자리다.
- 유슈배미(버들배미) 139, 140-1번지 버드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만든 논이다.
- 여상대 논 156-1 지명 유래 알 수 없다.
- 괴(계) 논 152-3번지 유난히 참깨가 많았다고 한다.
- 기미 논 147-2 어른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 광성넙두리 145-6 장승백이 안 (남쪽)에 있는 들 이름이다.
- 성뚝나드리 227번지 조선시대 백 장군 묘에 쓸 양 모양 석물 등을 만들었던 논이다.
- 돌목 논 224-1,2번지 용못 물과 고랑 물이 합해 내려와 다시 돌로 갈라져 흐르는 곳이다.
- 공세 논 239-1,2,3,4번지 마을의 세금을 내기 위해 농사지었던 논으로 추정한다.
- 못아래 논 269번지 용못 아래에 있는 논이다.
- 비선모루 논 239-3번지 윤씨네 비석 옆 논, 그 비석을 지나가야 논에 갈 수 있다.
- 씨기뿌리 논 270-4번지 씨기처럼 뾰족한 산모퉁이가 있는 논이다.
- 중문은골 논 290-2번지 열병에 걸린 스님이 논에서 죽어, 스님은 골짜기 묻어주고, 중의 팽과리는 논에 묻었다고 한다.
- 덩희 논 273번지 마을회관에서 보면 동북쪽 산 밑에 있는 논이다.
- 중외 논 274-2번지 지명 유래 알 수 없다.
- 가외 논 271, 272번지 모양이 마치 가위처럼 생겼었는데 농지정리로 사라져 버린 논이다.
- 쇠갈 논 301번지 지명 유래 알 수 없다.
- 동네 논 309-2번지 그냥 동네 앞에 있는 논이다.

- **나무터 논 270-2번지** 조선시대 산 주인이 나무를 베어 뱃사람에게 팔려고 모아두던 자리다.
- **주개방죽 논 130-8** 어떤 이유에서 인지 주객이 많이 찾아왔던 자리라고 추정한다.
- **통수배미 237번지** 지명 유래 알 수 없다.
- **고부장 논 8-2번지** 할머니 등처럼 꼬부장하게 생긴 논이다.
- **벌집터 논 145-9번지** 백 장군 묘를 지키던 묘지기가 묘막을 짓고 살았던 자리다.
- **코 논 223-2번지** 논 모양이 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 들 이름** 주내미 들(속-유두방죽), 기숫개 들(속- 주개방죽), 낭아래 들(옆- 광성넙두리)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김포문화원에서 펴낸 『아흔아홉 골과 논에 이름이 있는 마을』
기록집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마을의 소리〉

상여소리 (정옥현 님)

우리인생 태어날 때 뉘덕으로 태어났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어머님전 살을 빌고 아버님전 뼈를 빌어,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십삭만에 탄생하여 거역접에 떨어지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진자리에 어머니 놓고 마른자리에 골라 뉘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애지중지 기르신 공 어느새에 다 갚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한두 살에 철을 몰라 부모 은공 못 다 갚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잔약하고 약한 몸의 태산같은 병이 드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부르느니 어머니요 찾는 이는 애비로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무너들이 굿을 한들 굿 덕인들 있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장이늘어 경을 읽은들 경 덕인들 있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삼신상 불사약도 백약이 무효로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일촉사자 손을 걸고 월척사자 등을 밀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어서가자 채촉하니 원통하고 슬프도다,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여보시오 사대입네 이 내말씀 들어보소,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신발이나 골라신고 허리끈 좀 졸라매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주저앉아 애걸한들 어느 사자 들을소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천둥같이 울러메며 육척장금 번쩍들고,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십리만큼 물러설 때 오리만큼 다가서며,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천둥같이 호령하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화살같이 달려가서 저승문을 당도하니,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저승사자 묻는 말이 무슨 공덕 하였느냐,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밥이 없어 굶은 사람 밥을 쥐서 공덕했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옷이 없어 벗은 사람 옷을 주어 공덕했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반대결구 모은 재산 먹고간들 쓰고 가나, 어허 어허요 어디넘쳐 어허요.

장가 못 간 총각이 부르는 노래 (정육현 님)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에 약초 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는 어느 메길래 해가 저도 아니거나
나의 집이는 실실실 실안개 속에 초가삼간이 나의 집이니
맘에 있걸랑 날 따라 오고 맘에 없걸랑 미끄러져라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아
창창한 하늘에 찬별도나 많고요
요 내 나 가슴엔 좋다 수심도나 많구나

용강리 마을









